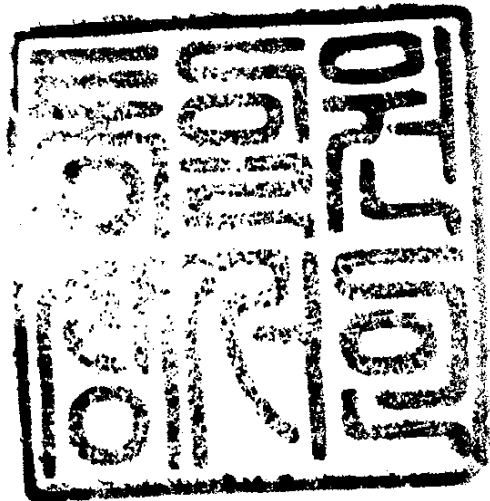


남북경제공동위 수첩 부록

# 북한경제용어집



통 일 위  
(남북회담사무국)

\* 이 책자에 수록된 용어는 남북경제회담과 관련하여 동 회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북한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용어,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특이 용어, 타국가와 해석을 달리 하는 용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음.

\* 용어풀이는 북한 『경제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85)의 내용을 발췌하였고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사항을 부기하였으며 『경제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해설만을 실었음.

\* 용어배열 및 맞춤법은 우리측 자모음 차례와 맞춤법에 따랐음.

## 차 례

### 〈 ㄱ 〉

- |  |   |
|--|---|
| <p>가격의 일원화 / 9</p> <p>가격제정 / 9</p> <p>가공무역 / 11</p> <p>가금업 / 11</p> <p>간접무역 / 12</p> <p>강선속도 / 13</p> <p>개인소유 / 14</p> <p>거침무역 / 15</p> <p>전본판매 / 16</p> <p>결산분배 / 16</p> <p>결제통화 / 17</p> <p>경공업 / 18</p> <p>경공업혁명 / 19</p> <p>경제개발계획 / 20</p> <p>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br/>노선 / 23</p> <p>경제관리에서 균중노선 관철 / 24</p> <p>경제블럭 / 25</p> <p>경제조직사업 / 26</p> | <p>경제책임제 / 26</p> <p>경제특구(대외개방지대) / 26</p> <p>경제합영 / 27</p> <p>계단식 남새생산 / 28</p> <p>계산자리 / 29</p> <p>고려항공 / 29</p> <p>고열노동 / 31</p> <p>공구혁명 / 31</p> <p>공급제 / 31</p> <p>공업소유권 / 32</p> <p>공업열성자회의 / 33</p> <p>공예작물 / 33</p> <p>공작기계새끼치기 운동 / 34</p> <p>공장달아매기 / 35</p> <p>과학기술축전 / 35</p> <p>교차생산조직 / 36</p> <p>국가경리 / 37</p> <p>국가예비 / 37</p> <p>국가유일무역제도 / 38</p> <p>국방공업 / 39</p> <p>금요노동 / 39</p> |
|--|---|

기계화 가정운동 / 40  
 기동예술선전대 / 41  
 기업가 / 42  
 기업소 / 43

< L >

남새업 / 47  
 내부예비 / 47  
 노동대열 편제화 / 48  
 노동수첩 / 48  
 노동영웅운동 / 49  
 노동자구경리위원회 / 49  
 노력공수 / 50  
 노력예비 / 51  
 녹비작물 / 52  
 농민시장 / 52  
 농민시장가격 / 53  
 농부산물 / 54  
 농사제일주의 / 55  
 농업기업소 / 55  
 농업협동화 / 56  
 농촌경리 / 58  
 농촌버스화 / 58

< □ >

다각적 국제청산협정 / 61  
 다락밭 건설 / 61  
 당논역 넘겨주는 값 / 62  
 대안의 사업체제 / 62  
 도농촌경리위원회 / 63  
 독립채산제 / 64  
 돈자리 / 65  
 되거리 무역 / 66

< □ >

마살계획 / 69  
 맞비기기 결제 / 69  
 명절특배제 / 70  
 무궤도 전차 / 71  
 무역의 다각화·다양화 / 72  
 무역의 자유화 / 74  
 무역회사 / 74  
 문호개방정책 / 75  
 미성품 / 76  
 민수산업 / 77  
 민족자본가 / 77

## 〈 ㅂ 〉

바터무역 / 81  
 밭공장 / 81  
 변강무역 / 82  
 부침땅 면적 / 83  
 분수식 밭관개체계 / 83  
 분조 / 84  
 분조관리제 / 84  
 비날론 / 85  
 비무역거래 / 86

## 〈 ㅅ 〉

4대 자연개조사업 / 89  
 사업총화 / 93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 94  
 4.15 기술혁신 돌격대 / 95  
 사회적 소유 / 96  
 사회주의 경리수입금 / 97  
 사회주의 경제 / 98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 / 99  
 사회주의(적) 공업화 / 100  
 사회주의 농업 / 101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태제 / 102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 / 103  
 사회총생산물 / 103  
 사회총생산액 / 104  
 삭도수송 / 106  
 산업자본 / 106  
 3대 수송방침 / 107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 108  
 3대혁명소조 운동 / 109  
 3백일출어 운동 / 109  
 3차 7개년계획 청년봉화상 / 110  
 3화수송 / 110  
 상품фон드 / 111  
 새기준·새기록 창조운동 / 112  
 새땅찾기 운동 / 113  
 생산의 3요소 / 113  
 생산적 소비 / 114  
 생산총화 / 115  
 설비의 만가동 / 116  
 설비의 만부하 / 116  
 세금 / 117  
 소유권 / 118  
 속도전 / 118  
 수송혁명 200일 전투 / 120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 121

식량문제 / 122

< ○ >

애국미 헌납운동 / 125

연대수송 / 125

연불수출 / 126

연안무역 / 127

연합기업소 / 128

영양단지 / 130

완충기 / 130

외자도입 / 131

외화벌이 사업 / 131

우리식대로 살아가자 / 133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 / 134

위탁가공 / 136

위탁가공무역 / 137

유무상통의 원칙 / 138

유색금속 / 139

2백일전투 / 140

26호 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 / 141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 / 142

2천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 / 143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

과학화 / 145

인체보험 / 146

일용품 공업 / 146

< ㅈ >

자력갱생 / 149

자연개조 5대 방침 / 149

작업반 / 150

재가공 / 151

재수출 / 152

재정통제 / 153

전인민적 소유 / 153

전환무역 / 154

정성운동 / 155

정춘실 운동 / 156

정치사업과 경제기술사업의

옹은 결합 / 157

제3차 화폐개혁 / 158

조·중 압록강 수력발전회사 / 159

종합공장 / 160

주체농법 / 161

중공업 / 162

증산·절약운동 / 163

지방행정경제위원회 / 164

직접무역 / 165

짐함수송 / 166

< ㄷ >

채취공업 / 169

천리마운동 / 169

철도의 전기화 / 171

청산결제 / 172

청산리방법 / 173

초물제품 / 175

축적фон드 / 175

< ㅈ >

토지국유화 / 179

통화블럭 / 180

특허권 / 181

특혜관세 / 182

< ㅊ >

파업 / 185

판매협동조합 / 185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 / 186

'80년대 속도 창조운동 / 187

평양속도 / 189

폐쇄경제 / 190

< ㅎ >

합영기업 / 193

합자회사 / 194

합작(경제합작) / 195

협동농장 /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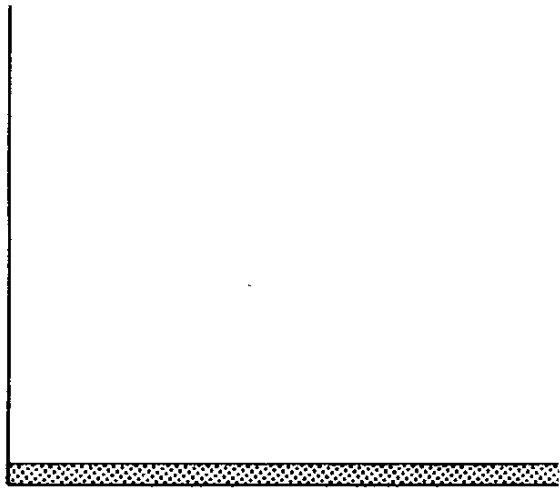
협동적 소유 / 198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 /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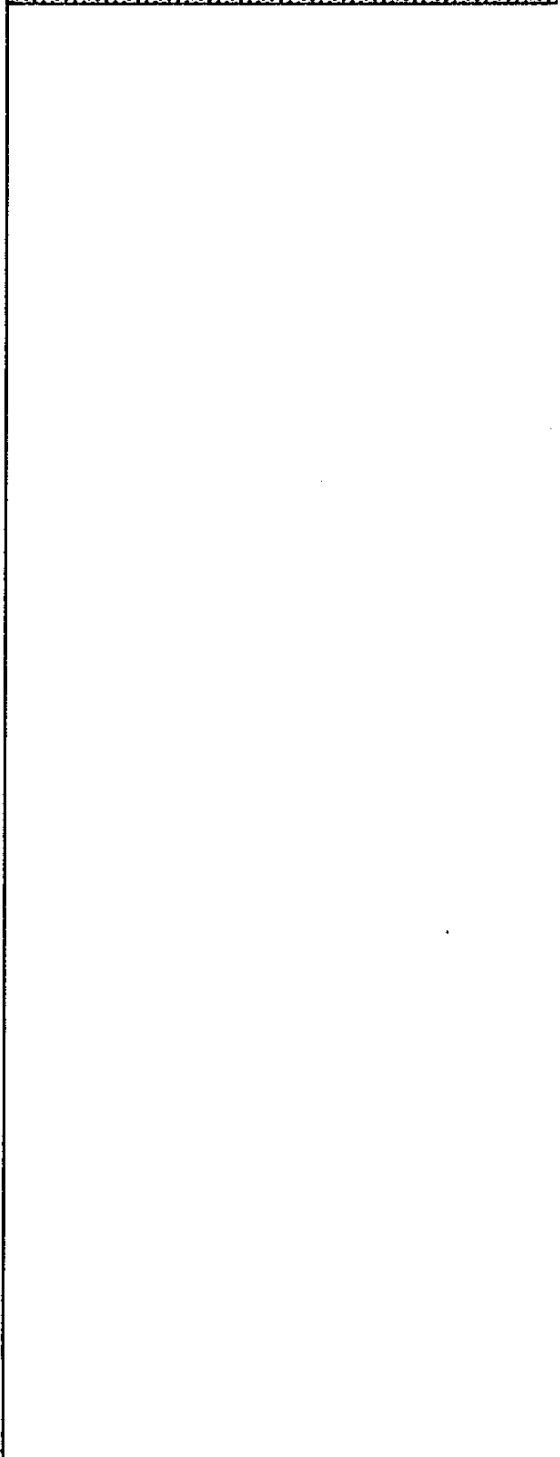
환자 / 200

환자시세 / 200

흙갈이 작업 / 201



7





## 가격의 일원화

국가가 가격 제정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가격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

가격의 일원화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가격의 일원화에서는 국가의 전문 가격제정기관들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가격제정 체계를 이루고 중앙가격제정기관이 가격제정을 중앙집권화하여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품의 가격을 정한다.

가격의 일원화에서는 또한 중앙가격제정기관이 가격의 기준과 표준가격, 가격제정 절차와 방법을 통일적으로 제시하여 주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가격제정기관들이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제품의 가격을 해당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며 생산기관, 기업소들이 마음대로 값을 높이거나 낮추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요구에 맞게 가격을 정하도록 한다.

가격의 일원화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본성에 맞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가격제정방침이다.

## 가격제정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타산하여 값을 계획적으로 정하는 것.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기초하여 가치의 크기가 규정되고 가치에 따라 등가교환이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가치법칙을 타산하는 것은 가격제정의 본래의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 생산과 교환이 일정한 범위에서

남아 있고 상품이 아닌 생산수단이 상품적 형태를 띠는 조건에서 가격은 필연적으로 있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 가격은 반드시 가치법칙의 요구에 맞게 제정하여야 한다.

가격제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의거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기초하여 가격을 정하는 원칙은 상품인 소비품의 소매가격 제정에 적용될 뿐 아니라 상품적 형태를 가지는 생산수단의 도매가격 제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격제정의 중요한 원칙의 다른 하나는 가치와 가격을 의식적으로 배리(차이)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을 고무 먹이고 입히며 다같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가치로부터 가격을 능동적으로 배리시켜 대중소비품의 값을 낮게(싸게) 정한다.

가격제정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등 가격종류 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가격제정의 가장 정확한 방도는 가격의 일원화이다. 사회주의국가가 가격제정 사업을 유일적으로 틀어쥐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서 가격을 통일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가격일원화는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이 가격의 객관적 기초로 정확히 놓이게 하며 가치로부터 가격의 배리 방향과 수준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규정될 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일원화체계에서의 가격제정은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가격제정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공정과 해당 가격제정 기관들에 의한 가격제정 신청서 심의, 비준의 공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격제정 기관은 기관, 기업소들이 마음대로 값을 높이거나 낮추지 못하게 엄격한 통제를 한다.

## 가공무역

원료 또는 반제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그것을 가공한 후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형태.

일반적으로 가공무역이라고 하면 수입한 원료, 반제품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말한다. 이것을 능동적 가공무역 또는 수출가공무역이라고 한다.

가공무역에는 원료, 반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그것을 가공한 다음 다시 수입하는 형태의 가공무역도 있다. 이것을 수동적 가공무역 또는 수입가공무역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공무역형태는 비교적 드물다.

가공무역형태에는 통과적 가공무역도 있다. 이것은 수입한 원료 또는 반제품을 선별하거나 다시 포장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형태이다.

가공무역은 또한 그 조직형태에 따라 보세가공무역과 위탁가공무역으로 구분한다. 보세가공무역은 관세를 붙이지 않고 세관의 감독밑에 수입한 원료, 반제품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이고 위탁가공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료가공을 위탁받아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이다. 가공무역에서는 수입액과 수출액(가공비 포함)과의 차액이 그 나라의 수입으로 된다.

## 가금업

가금의 알과 고기를 생산하는 농업의 한 부문이다. 알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새의 야생적인 습성을 변화시키고 새를 길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였다.

가금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인 닭기르기는 5천여년 전에 들 닭을 길들여 생겨났으며, 오리기르기는 기원전 1~2세기에 물오리를 길들여 발생했고 계사니(거위)기르기는 4천여년 전에 기러기를 길들여 발생하였다. 가금업은 축산업의 다른 부문에 비하여 여러가지 기술경제적 우월성을 가진다.

## 간접무역

거래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를 거쳐서 진행되는 무역으로 중개무역이라고도 한다. 간접무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흔히 이용된다. 간접무역에서 당사자들은 상품판매를 위탁하는 위탁자이며 그 위탁을 받는 사람은 중개인(수탁자)이다.

간접무역에서 위탁자는 자기의 비용과 이름으로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을 맺을 것을 위탁한다. 위탁자의 위임에 의하여 중개인이 어떤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맺을 경우 그 계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탁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간접무역이 제3국의 중개인을 거쳐서 진행될 때 그 제3국의 입장에서 그 무역은 중개무역으로 된다.

간접무역에는 일정한 상품을 한번 또는 몇번에 걸쳐 그 판매를 위탁하는 위탁판매무역방식과 일정한 기간 고정적으로 무역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대리점위탁판매방식이 있다. 일정한 지역안에서 오직 하나의 대리점만을 설정하고 그에게만 위탁판매를 계속 위임할 때 그 대리점을 총판매대리점이라고 한다.

간접무역에는 매매계약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직접 맺어지고 상품도 직접 상호간에 주고받지만 그 대금결제에 제3국의 무역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는데 이러한 간접무역형태를 전환무역이라고 한다. 여기에 제3국의 무역업자를 일반중개인과 구별하여 「스위처」라고 부른다.

전환무역은 그 나라정부가 정치적인 동기 또는 외화관리상 직접적인 무역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 또는 나라와의 무역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 강선속도

김일성의 영도밑에 7개년계획의 마지막 시기에 강철고지점령을 위한 강선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천리마속도.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훨씬 능가한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강선속도는 역사적인 노동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대진군을 하던 1970년에 창조되었다.

김일성은 1969년 11월 5~6일 이틀동안에 걸쳐 강선제강소일꾼들을 불러 협의회를 가지고 7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일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1969년 12월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2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노동당 제5차대회 소집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게 하고 당 중앙위원회 편지를 통하여 전체당원들에게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함으로써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5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할 것을 호소하였다.

1969년 12월 26일 강선의 노동계급은 노동당 제5차대회를 혁명적 고조로 맞이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집회를 가지고 당 제5차대회전으로 1970년도 계획을 완수함으로써 7개년계획말의 생산목표를 지표별로 어

김없이 돌파하여 연말까지 강철은 125%, 강편은 118%, 압연강재는 114%, 인발강관은 120%, 단집강관은 120%, 쇠뿔줄은 124%로 각각 넘쳐 수행할 것을 결의다지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였으며 1970년 새해 첫날부터 총돌격전을 벌였다.

1970년 1월 25일 현재로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강철생산량을 203%로 늘이고 1월분 생산계획을 100.2%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1/4분기에 제강소적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2배가 넘는 새로운 높은 속도를 창조하였다.

## 개인소유

물질적 부에 대한 개별적 사람들의 소유로 집단소유 또는 공동소유와 구별되는 소유의 한 형태이다. 소비품에 대한 개인들의 소유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소유가 집단소유 또는 공동소유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쓰일 때는 소비품과 함께 생산수단을 다 포괄한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최초의 개인소유는 원시공동체사회가 무너지던 시기에 나왔다. 자신의 노동에 기초한 개인소유는 개별적 가족들이 자기의 독립적 경리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발전하였을 때에 나타났다. 남의 노동 착취에 기초한 개인소유는 교환의 발전에 따라 씨족적 유대가 약화되고 공동체의 우두머리들과 권력있는 자들이 공동체 성원들의 공동소유물과 이미 발생한 개인적 노동에 기초하는 개인소유물을 빼앗는 방법으로 장악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났다.

개인소유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로 된다. 이것은 개인소유가 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연결되어 있으며 어디까지나 자기 노동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소유가 있고 이에 따라 개인재산의 상속권을 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공산주의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사회의 미숙성,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져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이 극복되고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될 때 개인소유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 거침무역

무역화물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그 수송과정에 제3국을 거치는 무역으로 통과무역이라고도 한다. 무역은 거래되는 화물의 이동방향에 따라 수출무역, 수입무역, 거침무역, 되거리무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침무역이라 할 때 그것은 화물의 이동과 관련하여 제3국의 견지에서 말하는 것이다. 거침무역이 있게 되는 것은 무역품이 수송상 필요에 따라 수출국과 수입국이외의 지역을 거치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공화국과 구라파 사회주의나라들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그 나라들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무역화물이 직접 수요자에게 직송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을 거치게 될 때는 제3국의 견지에서 그것은 거침무역이 된다.

거침무역은 국제적으로 교통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에 많이 있는 현상이다. 거침무역에 의한 통과국가의 이득은 주로 통과운임, 보험료 등의 수입을 얻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통과국가는 거침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붙이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 견본판매

상품매매 계약을 맺을 때 상품의 품질, 형태 등에 대한 견본을 정해놓고 그것에 의하여 진행되는 상품 판매방법이다. 여기에서 견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실지 거래될 상품의 일부이면서 그를 대표하며 이에 의하여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 형태 등의 조건을 약정하는 물건을 가리킨다.

견본판매의 경우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는 보통 2~3개의 같은 견본을 골라서 공동으로 봉인한다. 그리하여 견본의 하나는 판매자가 가지고 다른 하나는 구매자가 가진다. 그리고 필요하다면(계약에 지적되었을 경우) 또 하나의 견본을 계약서에 지적된 제3자(예하면 상품검사기관)에 보관시킨다. 이 견본은 앞으로 대량거래하는 상품의 기준으로 되며 또한 품질평가에서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분쟁해결의 기초로 된다.

견본에 의한 매매조건에서는 「견본과 같다」 또는 「견본과 비슷하다」 등의 표현을 쓴다. 견본판매는 기능자본가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된다.

## 결산분배

농업협동경리에서 연간 생산 및 재정 활동을 총화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하는 사업.

결산분배는 농업협동경리에서 개인소비품의 분배과정을 동반하는 독특한 형태의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이다. 농업협동경리에서는 생산수단이 해당 경리의 범위안에서만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의 분배도 전



사회적 범위에서가 아니라 개별적 농장의 범위안에서 수지를 맞추면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만큼 매개 농장이 연간 결산과 분배를 정확히 하여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바로 맞추면서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농업에서는 지출노동의 결과를 연말에 가서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 지출시기와 노동지불시기를 일치시키기 어려우며 지출한 노동에 대한 확정지불은 그해 농사가 끝난 다음에야 할 수 있다. 농업협동경리에서는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서와 같이 결산과 분배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결산분배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총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타난 우결함을 정확히 갖고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는 방향에서 진행한다.

결산분배에서는 경리를 어떻게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총화하고 다음해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세운다. 또한 그해의 수입을 확정하고 분배한다. 결산분배는 광범한 대중의 참가하에 진행되는 연간사업총화이다.

## 결제통화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에서 상품값을 치르는 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불거래를 위하여 쓰이는 화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제통화는 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밑에 지불거래를 하게 되는 은행들 사이의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세계 사회주의시장에서는 수입한 상품의 값을 그 나라에 수출한 상품값으로 맞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시장에서는 반드시 금이나 기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화폐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만 수출하면 필요한 물건을 그만큼 수입할 수 있다. 여기서 계산은 결제통화로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대외무역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느 한 나라의 민족화폐에 매달리는 일이 없게 되며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간편하고 합리적인 무현금결제방식을 쓰고 있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비한 세계 사회주의시장의 우월성의 하나이다.

세계 자본주의시장에서는 자본주의경제제도와 통화제도의 불안정성으로 하여 반드시 금이나 기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통화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나라와 무역할 수 있다.

## 경공업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으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경공업에서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천과 신발, 일용품과 식료품을 비롯한 소비재들을 주로 생산하며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 쓰이는 여러가지 원료제품을 생산한다. 경공업은 중공업에 비하여 적은 투자로써 건설할 수 있으며 생산순환기간이 짧고 자금회전속도가 빠르며 사회적 생산의 마감단계로서 사회적 생산을 완결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경공업에는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공업, 종이공업과 같은 공업부문들이 속한다. 경공업의 해당 부문은 내부공업부문들로 더욱 세분된다. 방직공업은 화학섬유방직, 면방직, 아마방직, 견방직, 모방직 등 부문으로, 식료공업은 장공업, 기름공업, 과자 및 사탕공업 등으로, 일용공업은 철제일용품, 수지일용품, 목재일용품, 전기일용품과 같은 것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갈라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공업은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복무하여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 \* 북한은 주민 생필품난이 가중되자 1989년 신년사를 통해 당해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정하고 같은 해 노동당 제6기 16차 전원회의('89. 6)에서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89. 7-'92. 6)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 계획 추진을 위해 「경공업혁명청년선봉대」칭호를 제정하고 이 칭호 생취를 위한 노력경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공업대회를 개최('90. 6), 경공업부문 종사자들의 역할배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93. 12)에서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향후 2-3년간을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 농업·경공업·무역체일주의 전략방침을 내세우고 이를 김일성의 1994년 신년사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 경공업혁명

주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주민 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는 혁명.

경공업혁명은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경공업 생산토대를 확대 강화하고 제품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며 그 종류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질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김정일은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경공업생산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침은 가까운 시일내에 소비품생산에서 일대전변을 일으켜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더욱 높이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경제개발계획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토지개혁, 주요 산업의 국유화, 지하자원 및 산림의 국유화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58년 8월에는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공업의 협동화를 끝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했으며 1970년에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건설 과정에서 단기적인 경제계획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했는데 정권수립 이전인 1947년과 1948년에 각각 실시한 2차례의 1개년계획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장단기 경제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2개년계획」(1949~1950년), 「3개년계획」(1954~1956년), 「5개년계획」(1957~1960년),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년), 「6개년계획」(1971~1976년),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년),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등이 그것이다.

2개년계획은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잔재와 폐해를 제거하고 각 부문의 생산을 급속히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됐다. 3개년계획은 6.25전쟁이전 수준으로의 경제복구를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경제계획이 있었지만 북한에서 경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57년부터 착수된 5개년계획부터로 볼 수 있다.

- 5개년계획(1957~1960년) :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해 중공업우선정책을 표방하면서 공업화의 기초구축, 의식주문제 해결, 개인상공업의 사회화, 농업협동화의 완성 등을 주요과업으로 내세우고 1957년 시작됐다.

북한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스탈린시대의 「스타하노프운동」을 본떠 천리마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노동력 동원을 통한 경제건설을

본격적으로 도모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동원을 통해 5개년계획은 예정보다 1년단축되어 1960년에 종료됐는데 북한은 1956년 대비 국민소득 약 2.2배, 공업총생산액 3.5배(생산재부문 3.6배, 소비재부문 3.3배), 공업성장률 연평균 36.6%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이 기간중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다졌다고 주장한다.

- 7개년계획(1961~1970년) : 사회주의공업·농업경제로부터 사회주의 공업경제로의 이행을 지향하며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 발전을 정책목표로 하여 1961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계획초기부터 쿠바사태(1962. 8), 중국·인도 국경 분쟁, 중·소 대립, 미·소 평화공존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군사력 중시정책으로의 전환 등으로 차질을 빚었다.

그 결과 이계획은 1966년 10월 개최된 당대표자회의에서 기간을 3년 연장, 10개년계획으로 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로 결정,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특히 이 결정에 의해 북한의 군사비는 예산지출의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이 계획을 통해 공업총생산액이 3.7배 증가하는 등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면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 6개년계획(1971~1976년) :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 공고화, 산업설비의 근대화, 기술혁명, 노동자들을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 등을 기본과업으로 하여 1971년부터 시작됐다. 이 계획기간중에는 기술혁신을 위해 서구로부터의 자본, 기술, 설비도입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산업체질 개선, 균형성장 등에도 주력했다.

산업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기계공업부문의 발전과 공업의 내부구조의

조정(중공업 : 경공업 비율이 7개년계획기간에 80 : 20에서 83 : 17로 중공업비중이 높아졌다), 원료의 자급화(60~70%)등이 강조됐으며 계획기간중인 1975년을 「수송의 해」로 설정, 수송능력 확장에 주력했다.

그러나 북한은 1975년 8월 이 계획이 1년 6개월 앞당겨 완수됐다고 주장,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 북한은 이후 2년여동안 경제개발계획을 입안, 발표치 않음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경제개발계획을 처음으로 중단했다.

-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년) : 6개년계획 종료후 2년 4개월이 지난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결정되어 이듬해인 1978년부터 시작됐다. 이 계획은 이전의 어느 경제계획보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립경제건설을 반복 주장하는 등 자력갱생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특징을 보였다.

북한은 이 계획기간중 「'80년대 10대전망목표」(1980. 10)와 「4대 자연개조사업」(노동당 제6기 4차전원회의) 등을 제시하는 한편 대외경제사업과 무역의 확대 발전방침 채택(1984. 1), 합영법 제정(1984. 9) 등과 같은 경제적 대외개방조치도 병행해 추진했다.

이 계획 추진결과와 관련해 북한은 1985년 2월 16일 중앙통계국을 통해 1977년대비 공업생산액 2.2배, 전력 1백78%, 석탄 1백50%, 강철 1백85%, 공작기계 1백67%, 트랙터 1백78%, 자동차 1백20%, 채탄기 4.2배, 화학비료 1백56%, 화학섬유 1백80%, 시멘트 1백80%, 천 1백45% 등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 : 제2차 7개년계획이 종료된지 3년여의 조정기를 거쳐 198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회의의 결정에 의거해 추진되었다. 기본과업으로는 제2차 7개년계획과 같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비롯해 기술혁신과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등이 제시됐다. 그리고 구체적 계획목표로는 국민소득 1.7배(연평균 7.9

%), 공업생산액 1.9배, 농업생산액 1.4배 증대, 그리고 10대전망목표 실현 등이 설정됐다.

그러나 북한은 800km의 관개수로 건설(1990년), 평양시 5만세대 주택건설(1992년), 평양-개성간 고속도로건설(1992년)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1990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향후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하였다.

특히 북한은 이 기간중 구소련 및 동구국가들의 민주개혁으로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선진 과학기술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방으로부터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또한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련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새로 제정했다.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이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대등한 힘을 넣어 둘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는 노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일성에 의하여 1962년 12월에 소집되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은 공화국에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위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전략적 노선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의 혁명적 본질은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국방건설에도 그와 대등한 힘을 돌리면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두 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 나간다는데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 것은 결코 경제발전속도를 늦추고 국방건설만을 일면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건설은 국방건설의 물질적 조건을 닦는 것으로 되며 튼튼한 경제토대는 국방력강화의 물질적 기초로 된다.

따라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나 국방건설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여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 경제관리에서 균중노선 관철

생산과 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그 주인인 생산자대중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생산자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양시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것.

경제관리에서 균중노선을 관철하는 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중지도 사상을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에 구현하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대중영도분야에서 혁명적 균중노선으로 구현된다.

경제관리에서 균중노선을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데로부터 흘러나온다. 균중노선을 관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균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며 또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세움으로써 사람과의 사업이 경제관리에서 기본으로 되게 하기 위한 요구이다.



경제관리에서 균중노선을 구현하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자일 뿐 아니라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완전한 주인이며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다.

## 경제블럭

내부적으로 공동적인 여러가지 경제적 조절을 실시하며 대외적으로는 집단적으로 배타적인 차별조치를 실시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적 연합이다. 제국주의국가 또는 그 집단들이 자기의 식민지예속국가들을 강제체로 끌어들이어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블럭은 제국주의 이전시기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시기부터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경제블럭은 시장과 세력권을 둘러싼 제국주의열강들 사이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급격히 확대되었다.

경제블럭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경제블럭은 경제력이 보다 큰 나라가 연합에 참가한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고 그 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강화할 수 있게 하며 외부적으로 배타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나라들간의 대립과 충돌을 더욱 격화시킨다.

경제블럭은 그 경제적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조작된다. 무역블럭의 형태로 조작되는 경제블럭은 참가국들 사이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그밖의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공통적인 관세장벽을 쌓으며 일련의 무역조건들과 관련한 조절을 실시한다.

경제블럭은 자본주의국가들 사이의 각종 알력과 대립을 심화시켜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촉진하는 심각한 위기를 조성한다.

## 경제조직사업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짜고들며 그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조직사업은 경제의 주인인 근로대중이 맡겨진 경제과업수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람과의 사업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경제조직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노력조직, 협동생산조직, 수송 등이다.

## 경제책임제

사회주의 경제생활에서 국가, 집단, 개인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목적으로 책임, 권한, 이익의 3자를 결합한 중국의 경영관리의 한 형태.

경제책임제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주의적 협조관계를 구현하고 있으며 통제적 성격도 띠고 있는 새로운 형의 경제관리제도이다. 경제책임제에는 국가와 기업소 사이의 경제책임제, 기업소 상호간의 경제책임제, 그리고 기업소내부의 경제책임제가 있다.

국가와 기업소 사이에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의 요구와 정책,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와 기업소의 경제적 책임을 확정한다.

## 경제특구(대외개방지대)

융통성있는 대외경제시책들을 실시하는 중국의 특수경제구역.

1979년에 중국국무원은 4개도시의 일부 지역을 경제특구로 공포하였다. 중국에서 경제특구를 설치한 목적은 외국의 자본, 기술, 경영관리경험을 끌어들이고 취업조직을 마련하며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높여 경제발전을 촉진하자는데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자본주의나라들에 있는 공업단지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공업단지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 자본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특구는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킨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조건에서 여러가지 경제형태가 동시에 병존하는 구역이다.

외국자본가들은 특구내에서 일정한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부분 혹은 완전 경영관리권을 가지며 노동자를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가 규정한 특혜와 기타 이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특구내에서 일체 경제활동을 사회주의국가의 감독과 지도하에서 진행한다.

## 경제합영

서로 다른 나라의 경제기관 또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얻은 이익금이나 생산물을 나누어 가지는 경제거래의 형식과 방법.

경제합작은 그것을 하는 나라의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구별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이 다른 나라와 하는 경제합작은 새로운 경제부문들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국주의나라들이 다른 나라들, 특히 뒤떨어진 나라들과 하는 경제합작은 그 나라의 경제에 깊이 침투하여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며

높은 초과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합작, 경제합영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상에 따라 그것은 자원의 공동개발, 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어업, 농업, 건설 분야에서 합작, 공업제품생산을 위한 공장, 기업소의 공동 건설과 운영 및 제품의 협동생산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경영방법에 따라 단독적인 것과 공동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공동경영은 곧 경제합영을 전제로 한다. 합영기업이 설립되지 않고 따라서 경제합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기업을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 다른 합작당사자에게는 투자비만 상환되게 된다.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 하는 경제합영의 형식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공화국은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합영당사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공화국법이 규제한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경제합영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화폐자산, 현물자산과 발명권, 기술문건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값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평가한다.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 하는 경제합영에서는 자주성과 완전한 평등, 호혜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입장이 경제합영 형식과 방법의 전반에 철저히 관통되어 있다.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 하는 경제합영의 형식과 방법들은 다 경제합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 측이나 투자를 받는 측이나 할 것없이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정당한 경제합영의 형식과 방법이다.

## 계단식 남새생산

주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하기 위하여 한개

또는 여러가지 남새 종류와 품종으로 다모작재배형을 이루고 연간에 계속 남새를 재배하는 선진적 생산형태.

계단식 남새생산은 남새생산에서 계절성을 극복하고 단위면적당 소출을 높여 주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사철 떨구지 않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노력과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화폐수입을 늘여 농장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장의 생산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 계산자리

부기계산에서 경영자금을 분류하고 그의 증가와 감소를 계산하기 위하여 장부에 설정되어 있는 지표를 말한다.

계산자리는 경영자금을 분류하고 그 변동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 계산하기 위한 부기계산 지표이며 장소이다.

계산자리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소의 경영활동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소사업에 대한 통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계획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국가재산을 올바르게 보관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고려항공

고려항공은 「조선민항」으로 불렸으나 1992년 10월 1일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고 마크도 새로 바꿨다. 고려항공 마크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일의 따사로운 품을 형상화한 붉은 색으로 두른 원안에 기쁨과

행복의 상징으로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두루미의 모습(한반도 상징)이 푸른색으로 그려졌다”고 소개했다.

고려항공은 1993년 10월 현재 소련에서 제작한 AN-24, IL-18, IL-62, TU-138, TU-154기종 등 약 2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항공이 운행하는 국내선은 평양-함흥-청진, 평양-원산, 평양-혜산-삼지연, 평양-신의주 등이 있으나 평양-함흥-청진간을 1회 1일 왕복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들은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국제선은 평양-모스크바-베를린, 평양-모스크바-소피아, 평양-하바로브스크, 평양-북경, 평양-방콕 등 5개 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평양-모스크바-베를린 노선과 평양-모스크바-소피아 노선은 주2회 운항하던 평양-모스크바노선을 1987년 11월과 1989년 11월을 기해 각각 베를린과 소피아까지 연장하였으나 현재는 승객감소로 모스크바까지만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하바로브스크노선은 1975년 9월 개설, 주1회 운항하고 있으며 평양-북경노선은 1958년 2월 「북·중항공운수협정」 체결이후 개설되어 주2회 운항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방콕노선은 1993년 3월 18일 「평양·방콕간 항로개설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4월 5일부터 주1회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첫 취항직후 이용승객이 없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고려항공은 이와 같은 정기노선과 함께 일본과의 「전세기운항 협정」(1992. 1)에 따라 평양-나고야 및 평양-니가타 노선 등 일부 국제노선에 부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다.

## 고열노동

사람이 작업과정에서 매우 높은 열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육체노동. 일반적으로 중공업부문의 생산공정들에서 한시간 동안에 작업장 공기 1m<sup>3</sup>에 20Kcal이상의 열을 내는 작업장을 고열직장이라고 하며 이런 열이 발생하는 곳에서 일하는 작업을 고열작업이라고 한다.

## 공구혁명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에 기초하여 공구의 성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그 가지수를 높여 공구생산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것.

공구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기계공업발전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기계설비들의 생산에 절삭공구, 단조공구, 조립공구, 측정공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구가 이용되는 것만큼 공구의 성능과 가지수가 어떠한가에 따라 기계제품생산의 성과가 좌우되며 더 좋은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한다.

## 공급제

사회주의사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소비품 공급형태.

공급제는 생산력 및 경제관계 발전의 수준에 의하여 규제되는 두가지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 하나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공급제이며 다른 하나는 과도기에 실시되는 공급제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공급제의 기본특징은 높은

발전수준의 생산력과 단일한 전민소유제에 기초하여 생산된 소비품이 자유로운 매매형식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철저히 계획적으로 공급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완전승리가 이룩되어 공급제가 실시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소비품이 공급제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수준에서 고르게 충족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공급제는 과도기에 국가가 통제하기 위하여 일부 필수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급제와 다르다. 과도기에 사회주의국가가 공급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아직 물건이 넉넉하지 못한 조건에서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먹고 잘 살수 있도록 소비품공급 사업을 통제하기 위한다 있다.

## 공업소유권

발명에 대한 권리(특허권과 발명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품권, 원산지명권 등을 통털어 이르는 말.

공업소유권 보호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달리 실현된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자본가들의 초과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업적 발명이나 제작상의 새로운 고안, 제품의 형태와 색채, 무늬에 관한 고안 그리고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표식으로서의 상표 등을 발명 또는 고안해 냈을 때에는 발명자, 고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국에 등록하고 일정한 기간 그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 이러한 독점권은 일종의 재산권(무형재산권)으로서 공업적 발명이나 창안에 대한 사적소유를 담보한다.

공업소유권은 어느 것이나 다 대독점자본가들에 독점적 고율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는 본질상 차이가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점 자본가들은 공업소유권을 이용하여 투자한 자본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기존설비가 낡아지고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 공업소유권은 독점자본가들 사이에 기술독점을 위한 경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기술발전을 심히 억제하고 경제적 침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 공업열성자회의

1974년 70일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노동당창건 30돌전으로 6개년계획의 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총진군, 총돌격할 것을 선포한 총동원 회의로서 김일성의 지도아래 1975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 공예작물

주로 경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공예작물은 천, 기름, 기호품, 의약품 등 경공업의 원료를 목적으로 재배된다. 공화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공예작물로서는 목화, 대마와 같은 섬유작물과 기름골, 깨, 유채, 해바라기와 같은 유지작물, 담배, 호프와 같은 기호작물, 인삼과 같은 약용작물과 박하를 비롯한 여러가지 향료작물과 물감작물이 있다.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는 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공예작물은 모든 나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이용되며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 생산을 늘이는 것은 나라의 외화자원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잘되는 작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 공작기계새끼치기 운동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공장, 기업소에 있는 공작기계가 기본계획과제외에 한대 이상의 공작기계를 생산한다는 대중적 혁신운동.

노동당은 1959년 5월 김일성이 발기한 공작기계새끼치기 운동을 힘있게 벌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작기계가 기본계획과제 외에 1대 이상의 공작기계를 생산함으로써 한해동안에 공작기계 보유대수를 배이상으로 늘이도록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공작기계생산에서는 양적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정밀도와 성능이 높은 8미터타닝반, 다축보링반, 특수프레스 등 여러가지 대형 및 특수공작기계들이 새로 제작되었다. 공작기계새끼치기 운동은 그후 여러가지 형식으로 계속 발전하여 왔다. 공작기계새끼치기 운동은 커다란 정치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 북한은 이 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동당 제6기 14차 전원회의('88. 11)에서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 발전대책을 세우고 생산공정의 자동화·로봇화·전산화를 통한 공작기계의 양산 및 품종확대, 수치조종 공작기계·집적회로(IC)·전자자동화계기 양산 및 품종확대 등을 추구함으로써 공작기계공업을 전자자동화공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 공장달아매기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파업, 태업 등에 대항하여 그것을 탄압하고 와해시키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공장을 일시 달아매고 그들을 대량적으로 내쫓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억압과 착취방법이다.

## 과학기술축전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1986년부터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치적선전 차원에서 이들의 생일이 있는 매년 1~4월을 기해 개최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한해동안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총결산하고 그것을 인민경제의 여러부문에 도입, 일반화한다는 목표아래 과학자, 기술자는 물론 노동자, 농민, 교원, 군인 등 모든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행사는 공장·기업소단위행사, 시·군단위행사, 도단위행사 그리고 중앙행사로 나누어 단계별 경쟁방식으로 개최된다. 즉, 각 단계별로 우수자를 선발하여 다음단계로 올라가 경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주요 행사로는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새기술도입 및 기술혁신성과 발표회, 기술혁신 현상모집, 기술혁신 전시회, 기술강습 등이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축전은 통상 중앙과학기술축전을 통해 축전행사를 최종 마무리하는데 제8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1993년 8월 17일 평양에서 개

최됐다.

제8차 중앙과학기술축전과 관련해 최근 몇년동안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협동농장원, 청년학생 등 연 1백95만 7천5백여명이 이 행사에 참가해 51만 4천 5백여건의 과학기술성과와 기술혁신안들을 제기했다.

### 교차생산조직

전력계통에 망라되어 있는 각이한 전력수요자들 사이에 생산을 엮바꾸어 진행하는 생산조직 방법의 한 형태로서 교차생산조직은 전력계통에 망라되어 있는 생산단위들에서만 진행되는 고유한 생산조직방법이다.

현대적 동력체계에는 한 전력계통에 수많은 생산단위들이 망라되게 된다. 교차생산은 전력계통에 망라되어 있는 생산단위들에서의 전력수요에 비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원천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때 전력 생산과 공급, 소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한다. 교차생산조직은 전력수요와 생산을 보장하는데서 일체생산조직에 못지 않게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교차생산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다. 대상의 포괄범위에 따라 지역들 사이, 기업소들 사이, 직장들 사이, 교대들 사이 교차생산을 조직할 수 있다. 또한 원료, 자재의 보장조건에 따르는 교차생산과 전력부하곡선에 의한 교차생산을 조직할 수 있으며 기대들 사이의 교차생산도 조직할 수 있다.

교차생산조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전력부하곡선에 기초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 소비를 세부적으로 맞물리고 그것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다.

## 국가경리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경리로 개인경리 또는 협동경리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국가경리는 사회제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사회주의적 국가경리는 착취계급의 사적소유로 되어있던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 발전소, 철도, 체신시설 등을 수탈하여 국가가 틀어쥐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발생된다.

국가경리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중요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개혁에 의한 관개시설 및 일부 토지의 국유화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늘어나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확대강화되어 왔다.

사회주의하에서 국가경리는 협동경리와 함께 사회주의경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으면서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 국가예비

국가가 예견하지 않았던 사태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확보해두는 물자와 화폐자금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예비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물자 및 화폐자금이다.

국가예비는 인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료, 자재, 연료, 식량, 소비품을 비롯한 물자와 화폐자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예비에는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보관하는 전략예비와 연간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충당하는 기동예비가 있다. 국가예비는 물자균형표를 작

성할 때와 국가예산을 세울 때 계획적으로 예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예비는 나라의 방위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국가예비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사정과 관련된다.

### 국가유일무역제도

노동계급의 국가가 대외무역전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무역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

해방직후부터 모든 무역활동이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었으며 국가유일 무역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었다. 국가유일무역제도는 사회주의사회에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 재생산고리들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하나와 같이 맞물려 움직이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대외경제관계에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가 합법칙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국가유일무역제도는 ① 국가가 전문적인 무역기관을 상설하고 무역의 일원화체계를 세우며, ② 국가가 대외시장과의 연계를 직접 맺으면서 무역기관들이 취급할 상품과 그들의 활동지역을 설정하여 주며, ③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무역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무역기관들이 무역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④ 국가가 상품수출과 수입, 외화관리 등 무역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조절통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유일무역제도는 자본주의하에서 실시되는 대외무역에 대한 부르주아국가기구의 통제와 간섭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대외무

역의 고유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 국방공업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요구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업부문. 군수품에는 무기, 탄약, 군복을 비롯하여 군대를 유지하며 전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일체 물자들이 포함된다. 국방공업은 총, 포, 탄약, 전차, 군함, 군용비행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는 부문과 군복, 군화, 장구류, 군용식료품 등 군용필수품을 생산하는 부문들로 이루어진다.

사회주의하에서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적 요구이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한 나라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였다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독재가 계속 있어야 하는 것만큼 국방공업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과 직접 대치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 금요노동

당정간부들과 사무원들이 매주 1회씩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의무노동의 한 형태.

1959년 3월 1일 「내각결정 18호」로 사회의무노동제를 도입하여 학생,

사무원들을 매년 일정기간 육체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금요노동은 이러한 의무노동의 한 형태로서 당정간부 및 사무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이 주로 금요일에 노동에 참여한다고 하여 이와 같이 이름 붙여졌다.

금요노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매년 첫번째 금요노동에 즈음해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당정간부 및 사무원들이 노동에 참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 기계화 가정운동

협동농장원 가정을 트랙토르(트랙터) 운전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다.

기계화 가정운동은 김일성이 1978년 1월 황해남도 용연군 종합농장의 한 농장원 가정의 9식구가 모두 트랙토르 운전수가 되어 작업반의 기계화를 담당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높이 치하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라는 교시에 따라 발생하였다.

이 운동은 농장원 가정이 트랙토르 운전수 가정으로 되고 그에 기초하여 분조와 작업반, 협동농장의 모든 농장원들이 농촌기계화 전사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운동이다.

또한 기계화 가정운동은 부부간, 형제간, 자매간이 직접 교대운전수가 되어 트랙토르를 알뜰히 관리하게 함으로써 트랙토르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운동이다.



## 기동예술선전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경제선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

김일성이 1961년 12월 28일 개최된 전국청년기동선전대 종합공연을 관람한 후 창립을 지시함에 따라 각 공장·기업소 등 단체별로, 시·군 등 행정단위별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군중속에 기동성있게 침투해 당정책을 해설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나선 근로자들을 고무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며 주로 탄광, 광산의 지하 막장과 공장, 기업소 등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예술공연과 당정책 해설 등의 방법으로 활동한다.

이 조직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조직별 또는 계층별 경제선동경연을 개최하고 있는데 199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전국시·군기동예술선전대 경제선동경연(1992. 9)과 전국청년기동예술선동대 집중경제선동경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동예술선전대와는 별도로 각 도별 예술선전대와 직총산하의 노동자 예술선전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다.

도예술선전대는 6개년계획(1971~1976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북돋아 목표달성을 꾀하기 위해 1973년 1월 26일 결성됐다.

1993년 1월 26일 도예술선전대 창립 20주년에 즈음한 선전방송을 통해 이 선전대가 지난 20년동안 7천 3백여편의 화술소품, 1천 2백여편의 노래화술작품, 3백여편의 무용소품 등 1만여편의 예술선동작품을 창작해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5만여회의 경제선동과 공연활동을 벌였다.

## 기업가

자본주의적 기업의 출자자와 기업운영의 담당자.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가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돈과 채찍으로써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사는 착취계급의 한 부분이다.

자본의 출자자와 기업운영의 담당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출자자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던 자본주의발전의 초시기에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경영이 복잡해지거나 또는 한 자본가가 여러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게 되면서 출자자의 일부만이 관리운영을 맡고 그외의 출자자들은 직접 기업관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식회사기업의 발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의 주주에는 회사의 관리운영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비사업 주주(기능주주, 투자주주)와 그에 직접 참가하는 산업주주(중역)가 있다. 자본가들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관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의 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전문경영자를 둔다. 이리하여 기업의 소유와 경영사이에는 분리가 생기며 자본을 소유한 기업가는 더욱더 금리생활자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자들인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욱 영세화되어 전후에는 대부분이 수공업자나 소상공인과 거의 같은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은 국가의 지원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또한 자기들의 생산수단과 자금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영락된 경리를 복구할 수 없었다.

더욱이 농업과 수공업이 협동화되어감에 따라 그들은 원료와 자재, 상품을 그전과 같이 사적시장을 통하여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김일성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되었다.

## 기업소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로서 기업소는 일정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진행하거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얻은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채산을 맞추면서 경영활동을 진행한다.

공업생산부문의 기업소는 공장, 광산, 탄광 등과 함께 인민경제의 기층단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차이를 가진다. 기업소가 경영단위의 성격을 반영한다면 공장, 광산, 탄광 등은 생산의 조직기술적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소가 하나의 공장일 수도 있고 몇 개의 공장이 합쳐 하나의 기업소로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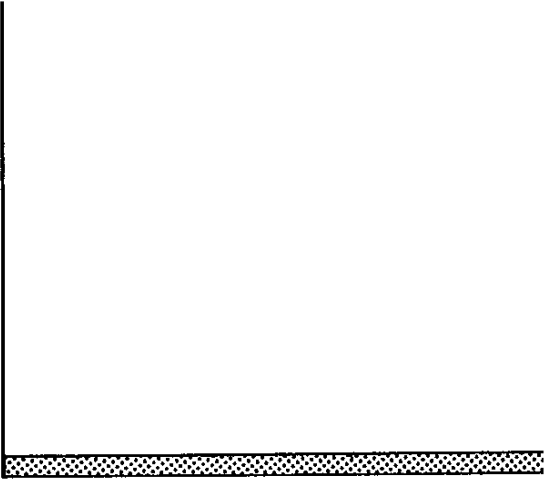
사회주의기업소에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정도, 관리소속, 경영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 정도에 따라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가 있으며 관리소속에 따라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소와 지방에서 관리하는 기업소가 있으며 경영방법에 따라 독립채산제기업소와 예산제기업소도 있게 된다.

기업소는 재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생산기술적 특성, 규모 등 이러저러한 표식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재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생산기업소와 유통기업소로 나뉘어진다. 생산기업소는 생산부문별표식에 따라 공업기업소, 농업기업소, 건설기업소, 운수기업소 등으로 갈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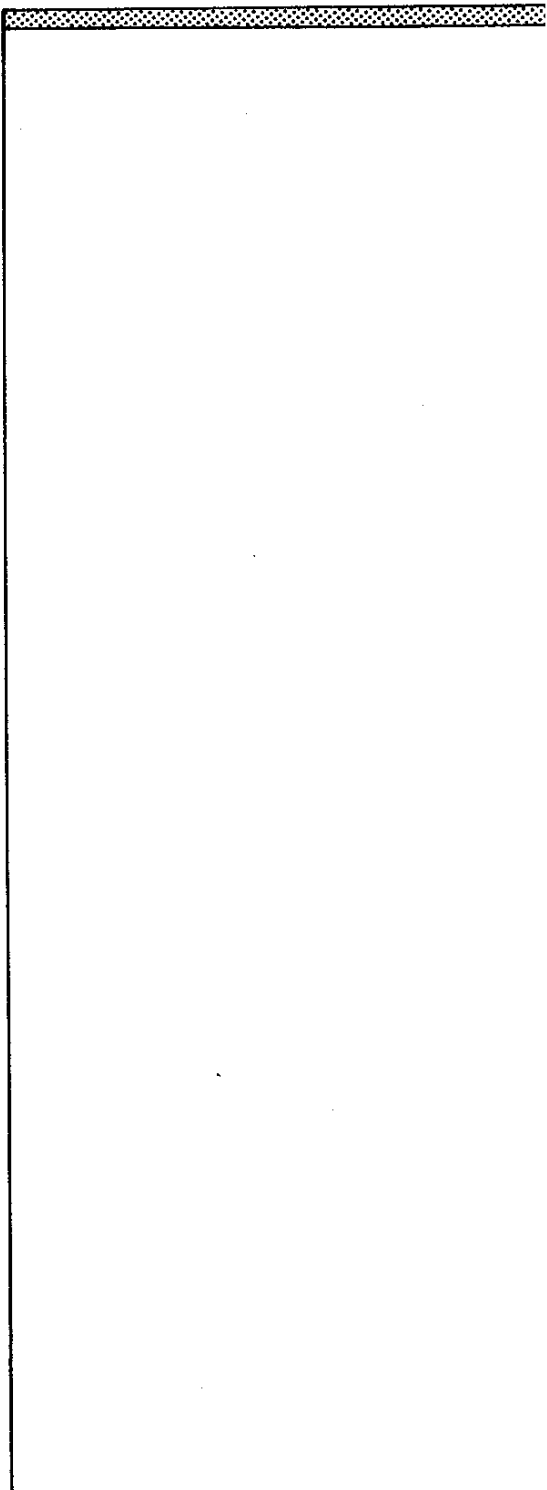
해방직후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 개인기업가들이 운영하는 민

영기업소가 있었다. 국영기업소들은 1946년 8월 중요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창설되었으며 민영기업소들은 민족자본가들의 중소기업을 장려한 당의 정책에 의하여 있게 되었으며 협동단체기업소들은 수공업자들로 생산협작사(후에 생산협동조합으로 됨)가 조직되면서부터 창설되었다. 도시와 농촌에서 개인상공업과 개인농민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개인기업가들이 경영하던 자본주의적인 민영기업소들은 없어지고 국영기업소들과 협동단체기업소만 있게 되었다.

기업소들을 그 형태에 따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전반적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업소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옹기 배합하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고 독립채산제를 올바르게 실시하는 것이다.



L



## 남새업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식물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본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의 한부문.

남새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부식물의 하나이다. 남새에는 비타민, 무기염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유기산 등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남새업의 발전은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해결하며 협동농장들의 현금수입을 높여준다.

남새는 먹는 부분에 따라 잎남새, 뿌리남새, 열매남새, 덩이줄기남새, 콩과남새 등으로 나눈다. 남새는 자라는데 알맞는 온도에 따라 저온성 남새와 고온성 남새로 나눈다. 남새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생육기간이 짧다. 남새의 이런 특성에 맞게 계절적 배치와 그루바꿈을 잘하면 사철 신선한 것을 생산할 수 있다.

## 내부예비

재생산과정에 쓰이지 않고 남아있거나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생산의 여러 요소들로서 동원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부예비라 한다.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이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내부예비는 그 표징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에서 노는 역할에 따라 증산예비, 절약예비, 질제고와 품종확대예비로 나뉘며 그것이 형성되고 동원이용되는 부문과 측면에 따라 공업, 농업, 건설, 운수 등 인민경제부문별 예비와 그리고 중앙예비와 지방예비로, 생산요소별 구분에 따라 노력예비와 자재예비, 설비예비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그 형성과 동원이용되는 시간적 계기에 따라 당면한 예비와 전망적 예비로, 경제적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단순예비와 복합예비로 나눌 수 있다.

### 노동대열 편제화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규모와 질적 구성을 공정별, 생산단위별로 규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노동대열을 편제화하는 것은 노동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노력을 작업대상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며 노력의 효과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노동대열을 편제화하면 노력의 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정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하고 노력을 효과있게 이용할 수 있다.

### 노동수첩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 매개 근로자들이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평가하여 역사적으로 기록한 노동생활을 증명하는 문건.

노동수첩은 국가적으로 노동행정사업을 종합적으로 맡아보는 노동행정부에서 발급한다. 노동수첩을 내주는 중요한 목적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노동에 대한 영예감을 안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일을 더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는데 있다. 노동수첩에는 매개 노동자, 사무원의 이름과 직종(직위), 기술(전문)자격과 기술기능급수, 일한 정형과 표창관계, 근속노

동연한과 직종이동정형 등과 기타 노동생활과 관련한 사항들이 기록된다.

## 노동영웅운동

해방직후 민주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첫 대중적 증산경쟁운동의 한 형태. 노동영웅운동은 민주건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양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대중적 증산경쟁운동이었으며 누구나 다 건국사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여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애국적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영웅운동이 활발히 벌어진 결과 1946년 3.1운동기념 증산경쟁에 참가한 직장수를 100으로 할 때 1946년 연말 증산경쟁에는 그 수가 무려 1,648.6으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여기에 참가한 노동자수는 530.6으로 늘어났다.

노동영웅운동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개별적 결의목표를 내세우거나 작업반, 직장, 공장 단위별로 증산경쟁을 걸고 노력적 투쟁을 벌였다. 또한 농민들도 1946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1만 6,764개의 농업증산돌격대를 조직하고 여기에 48만 6,318명이 참가하여 해방된 조선의 첫 봄을 증산으로 빛내기 위한 노력투쟁을 벌였다.

## 노동자구경리위원회

노동자구안의 공장노동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전반적 후방공급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하고 보장하는 상설적 협의제기관.

노동자구경리위원회는 김일성이 1961년에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세우면서 노동자들의 후방공급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조직되었다. 노동자구경리위원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새로운 후방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노동자구경리위원회는 공장의 후방공급부서와 함께 새로운 후방공급 체계의 구성부분이다. 노동자구경리위원회는 노동자구에 있는 모든 후방공급기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노동자구안의 주민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책임지고 조직한다.

노동자구경리위원회는 노동자구안에 있는 가장 주도적인 공장의 후방 부지배인을 위원장으로, 노동자구사무소 사무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국가농목장, 협동농장, 상업유통기관, 학교, 병원 등의 책임자들로 구성된다.

노동자구경리위원회의 일상적 활동은 상무 일꾼들이 한다. 노동자구 경리위원회는 노동자구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조직하고 보장함에 있어서 해당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 노력공수

일정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일정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들인 노동의 크기를 표시하는 척도.

노력공수에서는 복잡노동과 단순노동,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노동강도의 차이 등이 구별되지 않으며 다만 생산을 하는데 들이는 품, 노동량이 표시될 뿐이다. 노력공수는 노력용량 계산의 척도로서 노동계획을 세우는데 기초로 이용된다.

노력공수는 노력일수와 거의 같은 의미에서 쓰인다. 그러나 노력일은 일하는 날 또는 일한 노동시간을 법적 노동시간을 단위로 하여 표시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노력공수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일정한 제품생산에 들인 노력자들의 품정도를 표시하는 개념이다. 노력공수는 인/일로 표시한다.

노력공수는 공정 및 제품 단위작업량을 노력자들이 노동일 동안에 할 수 있는 해당 작업량으로 나누거나 노력자들이 작업공정 또는 단위제품에 들인 노동시간을 해당 공정, 해당 제품 생산부문의 하루 법적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노력공수의 크기는 작업량 또는 노동시간량에 정비례하고 하루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량 또는 법적 노동시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노력공수는 일반적으로 농업, 건설부문을 비롯한 작업기간이 오래고 작업대상이 종합적인 것으로 되는 공정, 단위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노력공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의 크기와 들이는 노력의 크기를 직접 나타내는 것으로 하여 생산조직에서 노력절약에 대한 관심을 자극한다.

## 노력예비

있는 노력자원을 보다 효과있게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공장들이 끊임없이 일떠서며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계속 창설되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늘 노력이 모자라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제도하에서는 그 우월성으로부터 있는 노력자원을 효과있게 이용하여 생산을 빨리 늘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노력예비가 끊임없이 생긴다.

## 녹비작물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풀거름을 만들 목적으로 심는 작물.

녹비작물을 심는 것은 지력을 높여 알곡소출을 훨씬 높일 수 있게 한다. 녹비작물 종류에는 기름냉이, 유채, 아욱, 기름무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녹비작물을 심는 것은 또한 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집짐승먹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많은 집짐승을 길러 질 좋은 부식토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강냉이밭에서 그루바꿈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또한 녹비작물을 심으면 화학비료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땅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농민시장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이 있게 되는 경제적 기초는 협동적 소유와 그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이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형태이다.

그것은 첫째로, 농민시장에서는 가격이 국가에 의하여 계획화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가치법칙이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며 둘째로, 농민시장에서의 상품거래가 전문적인 상업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 뒤떨어진 상업형태인 농민시장이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고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가 있는 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가 남아있는 한 그 생산물의 일부가 농민시장을 통하여 실현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들, 특히 소소한 일용품들과 일부 부식물들을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농민시장을 이용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은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며 국영 상업을 보충하여 상품공급통로를 넓히며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

농민시장은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될 때 없어지게 된다.

\* 농민시장은 통상 협동농장이 쉬는 날을 골라 10일에 한번씩 시와 군단위의 2~3곳 지정된 장소에서 열린다. '90년대 들어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자 농민시장은 국영상점에서 구하기 힘든 각종 생필품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농민시장가격

농민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으로 소매가격의 한 형태이다.

농민시장가격의 가장 공통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진다는데 있다. 농민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에서 생산되어 개인들에게 분배된 생산물과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일부이다. 이러한 생산물들은 국가의 계획화권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농민시장에서의 상품거래관계는 생산자와 직접적 소비자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맺어진다. 국가는 농민시장에서 유통되는 생산물의 특성과 그 거래관계의 성격으로부터 농민시장의 수요와 공급, 가격을 계획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민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며 가치법칙도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가격의 다른 하나의 특성은 그 자연발생성이 일정한 정도로 제한된다는데 있다. 농민시장가격은 국영부문에서 생산이 빨리 늘어나 인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이 더 잘 공급됨으로써 조절된다. 이러한 조절적 영향은 나라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소비상품을 보다 원만히 공급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농민시장가격은 또한 국가상업에서 소매가격을 계통적으로 낮추게 됨으로써 조절된다.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계획적으로 낮추는 국정소매가격은 농민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연발생성을 제한한다.

## 농부산물

농업에서 주되는 생산물의 생산과정에 함께 얻게 되는 부차적인 생산물. 알곡생산과정에서 얻게 되는 벧짚, 강냉이짚 같은 것은 농부산물이다. 농부산물은 집집승먹이, 경공업과 화학공업의 원료, 건설용 자재 그밖에 가마니, 새끼를 비롯한 포장재 생산에 이용된다.

공화국에서는 농부산물을 기본원료로 하는 펄프제지공업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농부산물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벧짚과 강냉이짚이 귀중한 경공업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 농사제일주의

쌀문제의 해결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점령하여야 할 고지로 내세우고 농사에 힘을 집중하는 당의 방침.

농사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알곡문제의 해결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로부터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기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농사를 잘지어 여러가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고 지난 기간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제일주의 방침을 제시하고 시종일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농사제일주의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자연 개조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한편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농촌에 대한 도시와 공업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북한은 1980년대이후 농경지 확대, 관개시설망 확충 등 자연개조사업에 의한 식량 증산을 도모하여 왔으나 자연조건의 불리, 경직된 영농체계 등의 이유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2년을 「대농의 해」로 정하는가 하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6기 12차 전원회의 ('93. 12)에서 「농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농업부문의 생산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 농업기업소

농업생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수단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영단위.

사회주의 농업기업소는 사회주의 소유의 두가지 형태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국가농업기업소와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협동농장으로 나뉜다.

사회주의 농업기업소는 토지개혁 당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불합리했던 일부 토지와 몰수한 관개시설을 가지고 국영농목장과 관개관리소를 조직함으로써 처음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농업기업소는 생산부문에 따라 농장, 목장, 과수농장, 잠업농장 등으로 나뉜다. 사회주의 농업기업소는 국가의 계획적 지도밑에 당의 농업정책을 직접 실현하는 기본생산단위이다. 사회주의 농업기업소는 노동조직의 기본형태로서의 작업반과 그 아래에 기층생산 및 노력조직 단위로서 분조를 가진다.

사회주의 농업기업소의 기본사명은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질 좋은 농업생산물을 보다 많이 생산공급하는데 있다. 사회주의 농업기업소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운영된다.

## 농업협동화

농촌에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경리로 개조하는 사회경제적 변혁으로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라고도 한다. 농업협동화는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농업협동화는 농촌에서 선진적인 사회주의 경리형태를 내오고 농민들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혁이다. 농업협동화는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소상품경제 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

박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에서 지배적인 소상품경리형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낳는 경제적 기반으로 된다. 착취관계를 낳는 사회경제적 근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농민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없다.

이것은 농업협동화를 통하여 소상품경리형태자체를 없애야만 해결된다. 농업협동화는 농업생산력을 낳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농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과업이다.

### 농업협동화 현황

연도	농업협동 조합총수 (개소)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호수		협동조합에 편입된 경지면적	
		호 수	총농가호수에 대한 비율(%)	경지면적 (1,000정보)	총경지면적에 대한 비율(%)
1953	806	11,879	1.2	11	0.6
1954	10,098	332,662	31.8	576	30.9
1955	12,132	511,323	49.0	885	48.6
1956	15,825	864,837	80.9	1,397	77.9
1957	16,032	1,025,106	95.6	1,684	93.7
1958	3,843	1,055,015	100.0	1,791	100.0
1963	3,732	1,066,896	100.0	1,837	100.0

\* 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통계집(1946~63)』(동경 : 일본 조선 연구소, 1965)



## 다각적 국제청산협정

3개이상의 나라들 사이에 서로 교차적으로 이루어진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맺는 협정. 이 협정에서 주되는 것은 3각적인 국제청산협정이다.

예컨대 「가」라는 나라가 「나」라는 나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라는 나라는 「다」라는 나라에, 「다」라는 나라는 「가」라는 나라에 각각 채권을 가지게 될 때 국제결제에 간편하게 할 목적으로 보통 1년에 한번씩 같은 금액을 실제적인 국제통화를 송금하지 않고 청산하는 경우의 협정을 말한다.

이때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해에 넘겨 청산하기도 하고 즉시에 금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청산하기도 한다.

## 다락밭 건설

산비탈 밭에 계단을 쌓아 수평 또는 완만한 물매를 가진 밭으로 만드는 토지건설사업.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2차 전원회의(1976. 10)에서는 알곡 1,000만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벌일데 대한 과업을 내놓고 그 내용의 하나로 20만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다락밭 건설은 빗물에 흙과 비료성분이 씻겨내리는 것을 막고 영농작업을 기계화하며 관수체계를 도입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며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 농작물의 단위당 소출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 닿는역 넘겨주는 값

원료, 자재를 생산한 기업소가 그것을 수요자 기업소의 가장 가까운 철도역(부두역 포함)까지 날라다 주고 적용하는 가격.

닿는역 넘겨주는 값은 광석, 석탄, 시멘트, 강재, 통나무, 권나무 등 수송량이 많은 중요 원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료, 자재의 유통에서 닿는역 넘겨주는 값을 적용하는 것은 유일가격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원료, 자재는 유일가격의 원칙에서 도매가격으로 제정된다. 그러나 원료, 자재가 일정한 수송경로를 거쳐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넘어갈 때 생기는 수송비를 비롯한 일정한 추가적 지출의 차이는 수요자들의 부담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닿는역 넘겨주는 값은 이러한 지출의 차액을 제품판매기관을 통하여 생산자측에서 상쇄하고 수요자측 자재공급기관은 원료, 자재를 넘겨받아 같은 값으로 공급하게 한다.

##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는 김일성이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 한데서 나온 공업관리형태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근로인민대중을 경제관리에서 주인으로 보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무엇보다도 계획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지도와 기술지도, 설비관리와 노력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생산자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풀어나가는 사업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또한 생산준비, 생산보장, 후방공급 등 경제관리의 중요한 사업들을 생산자 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철저히 부합되도록 조직진행하는 사업체계이다.

\* 대안의 사업체계는 집단주의 정신에 의거해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려는 공업관리형태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아래 생산활동을 관리하며 공장당위원회에는 당간부·행정간부·지배인·기사장·기술자·근로자(생산핵심당원) 등이 참여한다.
- ②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하에서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을 기사장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자재공급사업·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을 지배인의 지도하에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 ③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 부 관리국→공장·기업소→직장→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 지도하며 상급기관이 자재를 책임적으로 공급한다.
- ④ 근로대중의 생활문제를 기업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 부식물 공급조차 매우 부진하게 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종합적 후방공급체로서 노동자구경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장후방공급 부지배인을 위원장으로 임명, 근로자들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의 농촌경리발전을 조직지도하는 농업지도기관.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김일성이 1962년초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면서 그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조직하였다.

도농촌경리위원회는 도의 농업부문 일꾼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한다.

도농촌경리위원회는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국영농목장을 직접 지도방조하며 농업생산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기술적 지도를 위주로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하는 한편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추진한다.

### 독립채산제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소의 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경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경영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

독립채산제는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의하여 제기되는 물질적 관심성의 적용, 상품화폐관계의 형태적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방법이다.

독립채산제는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는 국영기업소들로 하여금 국가소유의 기계설비, 원료, 자재 등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질적 책임을 지게 하며 생산결과에 대하여 물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하는 기초위에서 기업소 경영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은 국가소유인 기계설비, 원료, 자재 등 생산수단을 책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이익을 준다. 국가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앞에 물질적인 책임을 진다. 반대로 생산수단을 잘 이용하고 관리하며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잘하여 국가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을 때에는 정치적 평가와 함께 물질적 평가를 받는다.

독립채산제는 국가기업소들로 하여금 자체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게

하며 다른 기업소들과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이해관계를 맺게 하는 기초위에서 기업소 경영활동을 진행한다. 독립채산제의 본질에서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계획적 관리운영방법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국영기업소들은 국가의 유일적 지도밑에 조직운영되는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그것은 일정한 사회적 분업을 담당하고 사회주의 국가경제가 수행하여야 할 경제과업을 수행한다.

\* 북한은 1962년에 중앙의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그리고 1970년대 초부터는 지방 산업공장을 포함한 공업·농업부문,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1984년 6월에는 다시 사무기관을 제외한 비생산부문의 기관이나 기업소에도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의 형태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반독립채산제」: 대상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중 일부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부분적 독립채산제

## 돈자리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돈거래를 계산하기 위하여 설정한 계산자리.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 과정에서는 원료, 자재의 구입 및 생산, 판매 활동과 관련한 돈거래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돈거래관계는 은행에 있는 해당 기관, 기업소의 은행돈자리를 거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들의 돈자리에는 물자구입과 생산, 판매와 같은 경영활동의 전반적 과정이 화폐형태로서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은행돈자리를 통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재정상태를 언제나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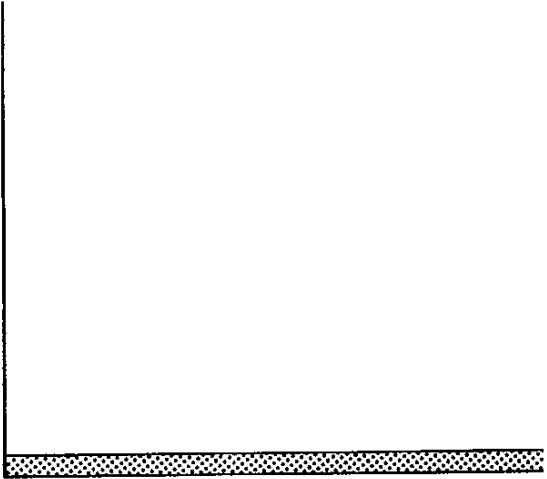
계적으로 분석장악할 수 있다. 국가예산에 바치는 돈도 돈자리를 통하여 지출된다.

### 되거리 무역

수입된 상품을 가공하지 않은 채로 다시 수출하는 무역의 한 형태로서 일명 재수출무역이라고도 한다.

되거리 무역이라는 개념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내가는 것만을 되거리 무역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 외에 나라 안에서 유통되고 있던 다른 나라 상품이라도 가공되지 않고 다시 다른 나라로 내가는 것도 되거리 무역에 넣고 있다.

되거리 무역은 수입품이 자기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하는 것 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다시 제3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되거리 무역은 시장가격의 차이, 수입한 상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급격한 변동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진행된다.



## 마셜계획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가 온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밑에 조작 실시한 침략적인 대외원조계획. 이 계획은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내놓았기 때문에 마셜계획 또는 마셜안이라고 하였다. 마셜계획은 1948년 4월에 조작되었고 1952년 6월경까지 4년동안 실시되었다.

마셜계획에 따르는 원조집행기관은 미국의 경제협력국(ECA)이었으며 그 침략적 목적은 서구라파 나라들을 예속시키는 것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서구라파 부흥을 위한 경제원조라는 이름밑에 이 계획을 전개하면서 구라파와 전세계에서 자기들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침략전쟁계획을 조작하려 하였다.

경제적면에서 마셜안이 노린 침략적 목적의 다른 하나는 서구라파 나라들과 그 식민지 나라들에서 새로운 판매시장과 원료원천지, 자본투자권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미제는 이를 위하여 저들의 상품과 대부자본을 국가자본의 형태로 수출하였으며 잉여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서구라파 나라들에 대충구좌를 두고 그 자금을 통제 이용하는 수법으로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 하였다.

## 맞비기기 결제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의 채권채무를 자금의 이동이 없이 장부상에서 청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결제. 맞비기기 결제는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물어줄 돈과 받을 돈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맞비기기 결제는 국내거래에서의 맞비기기 결제와 국제거래에서의 맞비기기 결제로 구분한다. 국내거래에서의 맞비기기 결제는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여러 기업소들이 계약에 근거하여 물자를 보내고 해당한 대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된 금액중에서 서로 합치되는 자금의 크기만큼만 맞비기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한 기업소의 돈자리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국제거래에서의 맞비기기 결제는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와 또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일부 신흥세력 나라들 사이에 적용되는 결제방법이다. 자본주의와의 국제거래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성과 통화의 불안정성으로 하여 맞비기기 결제가 적용될 수 없으며 거래건별 결제가 이루어진다.

### 명절특배제

이른바 사회주의 7대명절을 기해 주민들에게 일정 상품을 특별히 배급하는 제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생일(4.15), 김정일생일(2.16), 국제노동절(5.1), 해방기념일(8.15), 정권창건일(9.9), 당창건일(10.10), 헌법절(12.27) 등을 사회주의 7대명절이라 하여 공휴일로 정하는 한편 주민들이 이날을 특별히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절상품을 배급하고 있다.

명절상품의 배급량은 경제사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계층,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되고 있다.

명절특배제에 의해 배급되는 상품은 통상 세대당 술 1병, 물고기 1kg, 돼지고기 2백g, 그리고 약간의 당과류 등이다.

그러나 1988년부터 부활된 추석, 음력설, 단오, 한식 등 민속명절에 즈음해서는 명절상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무궤도 전차

철길없이 공중에 늘인 전기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전차.

무궤도 전차(Trolley-Bus)는 1962년 4월 30일 평양역-공업농업전람관간 구간에 처음으로 운행된 이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평양에만도 평양-공업농업전람관 구간을 비롯해 평양역-연못동, 평양역-서평양역, 황금별-송신역, 평양제1백화점-사동구역, 문수거리-낙랑구역, 모란봉-광복거리, 연못동-평성, 팔골동-대동강역 등 10여개 노선의 무궤도 전차가 운행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도 함흥시 해안-은덕간(1991. 7), 강계시 석현-장자간(1992. 4), 평성시 평성동-배산동간(1992. 4), 서평양역-서포3동간(1993. 3) 등의 무궤도 전차노선이 새로이 개통됐다.

이 전차는 전기를 동력원(6백~6백50V)으로 하여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없을 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궤도전차에 비해 건설비가 적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수송능력은 대형의 경우 약 1백명이고 소형은 50명 정도이다. 요금은 일반 10전, 학생 5전이다.

차량은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및 청진버스공장 등지에서 생산된다.

한편 북한은 평양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전후 평양시 복구사업 과정에서 철거됐던 궤도전차를 1990년대 들어 새로 건설하고 있다.

궤도전차 노선은 1989년 2월 김정일이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만경대 송산주차장-광복거리-붉은거리-서성거리-평양역-영광거리-새살림거리-사동구역 송신주차장 간의 제1노선(20km)이 1990년 11월 착공되어 1991년 4월 완공됐다.

이어 제2노선의 제1단계 구간(문수주차장-문수거리-청년거리-통일

거리-토성간, 12km)이 1991년 11월 착공돼 1992년 4월 완공됐다.

그러나 북한은 제1노선과 제2노선 제1단계구간의 완공시점이 약 1년이나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두 구간이 1992년 4월 27일 동시에 개통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제2노선의 제2단계 구간은 원래 만경대-안산거리-새마을거리-강안도로-평양대극장-모란봉청년공원에 이르는 14km구간이었으나 통일거리-충성의 다리-천리마거리-새마을거리-경흥거리-하신거리-서평양역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1993년 7월 하순 완공됐다. 이로써 평양시 궤도전차 총연장은 44km로 늘어났다.

북한은 제2구간 제2단계 공사구간이 완공된 후 이를 제3단계 궤도전차구간으로 칭함으로써 사실상 이 구간을 제3노선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이 평양시 궤도전차 건설공사를 추진할 당시의 제3노선은 김만유병원 앞에서 출발, 금릉동굴-안산여관-충성의 다리-통일거리-청년거리-평양산원을 거쳐 다시 김만유병원에 이르는 순환선이었다.

## 무역의 다각화·다양화

여러 무역단위에서 세계의 여러 지역, 여러 나라의 각이한 대상과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벌이는 무역활동 방식.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는 것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에서는 무역대상에 있어서나 무역제품의 종류와 그 거래방법에서 폭이 넓은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로서 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또한 채권채무관계를 서로 맞비겨 결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제관계를 간소화하고 외화사정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역거래대상을 늘이고 무역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며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무역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체제와 다각적 결제제도, 결제통화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사회제도에 따라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본가들이 무역거래를 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매개 나라가 처한 자연경제적 조건이 다를 뿐 아니라 소여단계에서의 생산력과 과학기술 발전수준도 같지 않으며 따라서 생산되는 원료 및 제품의 품종과 수량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대외무역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실현한다.

### 최근 북한의 무역추이

(단위 : 억달러, %)

연도 국별	'90년			'91년			'92년		
	총액	수입	수출	총액	수입	수출	총액	수입	수출
총액	47.7 (100)	28.1	19.6	27.2 (100)	17.1	10.1	26.6 (100)	16.4	10.2
중국	4.8 (10.1)	3.6	1.2	6.2 (22.8)	5.3	0.9	7.0 (26.3)	5.4	1.6
일본	4.8 (10.1)	1.8	3.0	5.0 (18.0)	2.2	2.8	4.8 (18.0)	2.2	2.6
러시아	25.7 (53.8)	15.2	10.5	4.7 (17.3)	2.8	1.9	3.0 (11.3)	2.3	0.7
기타 국가	12.4 (26.0)	7.5	4.9	11.3 (41.5)	6.8	4.5	11.8 (44.4)	6.5	5.3

\* 출처 : 주간 북한동향(통일원, '94. 1. 9-1. 15)

## 무역의 자유화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상품수입에 대한 통제, 수량제한을 약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독점자본의 판로개척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제국주의국가의 반동적 무역정책.

무역의 자유화는 다른 나라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의 실시를 주장하여 나섰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미제는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 강요하여 낮은 관세율의 상호적용과 최혜국 대우의 상호제공의 원칙에 의한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다방국제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을 1947년에 조작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표방하는 무역자유화정책의 침략적 본질은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나라, 특히 발전도상 나라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 나라들을 제국주의 나라들의 상품시장, 원료원천지로 만들려는데 있다.

## 무역회사

외국과의 상품수출입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상업기업소로서 무역상사로도 불린다.

북한의 무역회사는 무역정책의 실질적 수행자로서 외국의 무역회사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국영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무역회사는 법인의 권리를 가지고 무역계약 및 기타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대표부나 참사부와 구별된다.

무역회사는 여타 기업소와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원칙에 의거해 운영 되면서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중앙예산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윤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기도 하는 등 중앙정부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

예컨대 수출입가격이 대내외가격체계와 상이하여 무역손익이 발생했을 경우 각 무역회사들은 중앙예산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이익금을 국가에 환급해야 한다.

무역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부문의 수출입계획초안 작성과 국가가 비준, 시달한 수출입 계획의 수행
  - ② 외국 무역기관과의 개별계약의 체결
  - ③ 수출품 생산기업소 또는 수입품 수요기업소와의 수요공급계약 체결
  - ④ 상품의 인수인계에 따른 외화 및 내화의 결제
  - ⑤ 상품시장 동태 조사연구
  - ⑥ 당해 무역회사가 거래할 자본주의 무역회사의 신용상태 조사
- 현재 북한에는 약 1백20개의 무역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계된다.

## 문화개방정책

제국주의자들이 시장과 세력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해 그들의 상품과 자본 침투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정책.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약탈정책과 시장과 세력권을 분할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문호개방정책은 한 개 또는 여러 개 나라들의 시장과 세력권을 둘러싸고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과 투쟁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 정책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뒤떨어진 나라들에 있는 풍부한 원료자원의 약탈, 값싼 노동력의 이용, 상품판매 시장의 확보, 자본투하지의 개척과 확대, 경제적 이권의 획득 등이다.

문호개방정책은 언제나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의 경제적 낙후성을 퇴치하고 이 나라들의 경제개발과 발전을 도와준다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감행된다. 그러나 문호개방정책의 본질은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며 저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고 지배하자는데 있다.

문호개방이란 말은 본래 제국주의의 시장과 세력권 분할을 위한 투쟁에 뒤늦게 나서게 된 미제국주의가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이 차지한 시장과 세력권에 뚫고 들어가기 위하여 들고나온 침략구호로부터 나왔다.

## 미성품

개별적 직장들에서 가공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거나 아직 가공중에 있는 생산물.

미성품은 생산(가공)공정들이 복잡하고 생산주기(가공기간)가 긴 부분의 공장, 기업소 예컨대 조선소, 기계공장, 수리공장들에 상대적으로 많으며 생산주기가 길지 않은 부분의 공장, 기업소 예컨대 화학공장, 방직공장들에는 비교적 적다.

미성품은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들에 물려있는 생산물, 한 공정에서 가공이 끝나고 다음 공정의 가공을 기다리는 생산물, 전체 기술공정이 끝났으나 아직 검사를 마치지 못한 생산물, 여러가지 원인으로 가공되지

않고 쌓여있는 생산물(반제품), 고칠 수 있는 오작품, 반제품 창고로부터 생산현장에 출고되었으나 아직 기술공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반제품 등이 속한다.

## 민수산업

민수품 생산에 복무하는 산업으로 군수산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민수산업에는 군수품 생산에 복무하지 않는 공업, 수산업, 임업, 건설, 운수, 체신업 등 산업부문들이 주로 포함된다. 민수산업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민수공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수산업을 민수공업과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 민족자본가

외래독점자본과 결탁하지 않고 그와 모순관계에 있으며 자기 경리의 자유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토착자본가.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민족자본가들은 자본가의 절대다수를 이룬다.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민족자본가들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억제정책이 여러가지 형태로 감행되는 조건에서 자기 자본에 기초한 경리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그들은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였던 나라의 부르주아지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착취계급이지만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한쪽이된 매판자본가에 의하여 자기 활동을 억제당하며 따라서 불철저하게나마 반제의식과 민족적 독립의 염원을 가



진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관련된다. 민족자본가들은 외래독점자본가들 때문에 우선 경제의 중요부문에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며 원료원천과 상품판매시장을 빼앗긴다.

그들은 예속자본가들과는 달리 식민지통치당국이 강요하는 무거운 세금부담을 져야 하며 여러가지 경제적 압력과 통제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외래독점자본가들 뿐 아니라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며 기술경제적으로 뒤떨어진다.

경영규모로 보아도 그 절대다수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며 부차적인 경제분야에서 밖에 활동하지 못하고 언제나 파산당할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로부터 민족자본가들은 비록 착취계급이기는 하지만 반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日

## 바터무역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금액상 같은 액수의 상품을 맞바꾸는 무역거래방식으로 물물교환이라고도 한다. 바터무역은 보통 1년기간 서로 사고팔 상품 목록과 수량 및 금액을 규정하고 쌍방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터무역의 특징은 거래당사자들이 다 같이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로 되는데 있다. 무역 쌍방은 거래할 상품의 품종과 수량이 규정되면 수출상품의 총액과 맞먹는 상품을 그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물물교환에 기초하는 이 거래방식은 오늘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인 무역형태로 되어있지 않다. 공화국은 외화사정이 긴장한 발전도상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이 나라들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또한 이웃나라와의 국경무역에서 이 무역방식을 일부 이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바터무역을 식민지예속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착취하며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있다. 그들은 이 무역거래방식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들의 수출품을 원료와 연료의 형태로 고정시키면서 저들의 비싼 과잉공업제품들을 강제적으로 사들이게 하고 있다.

## 밥공장

밥을 비롯한 여러가지 주식물과 부식물을 공업적 방법으로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공장.

밥공장은 개별적 가정들에서 만들어내던 밥, 국수, 빵 등 주식물과 국, 김치 등 부식물을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여성들의

부업일을 덜어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밥공장은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공업적 방법으로 음식물을 생산함으로써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고 음식물 가공의 질을 높이고 그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간편하고 문명하게 한다.

## 변강무역

국가적 무역이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방과 지방사이에 직접 진행되는 무역으로서 변강무역은 맞바꿈무역의 한 형식이다.

변강무역은 금액상 같은 액수의 상품을 맞바꿀 뿐이고 화폐에 의한 대금결제를 따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체결되는 계약은 물물교환계약이며 계약당사자들 쌍방은 모두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로 된다.

변강무역거래에서는 금액상 같은 액수의 상품을 서로 팔고사는 두개의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며 이 두 계약이 다같이 성립되어야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즉, 두개의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두 계약에 다 서명함으로써만 각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두 계약이 이행되는 기일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팔고사는 계약이 비록 동시에 이행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안에는 다 이행되며 거래당사자들은 금액상으로 서로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변강무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여 오랫동안 생활하는 과정에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방과 지방 사이에 생산되는 전통적인 특산물들을 서로 교환할 필요성으로부터 제기되어 지금까지 발전하여 왔다.

공화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도들에서 변강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에 있는 도무역회사들은 지방무역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정하여준 범위안에서 탐구동원한 물자들을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방에 수출하며 또한 그곳에서 도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자체로 수입하고 있다.

### 부침땅 면적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면적. 부침땅 면적에는 논, 밭, 과수원, 병밭, 나무모밭이 포함된다. 부침땅 면적은 그해에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면적인 경작면적과 구별된다.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1980년대말까지 3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며 20만정보의 새 땅을 더 얻어내어 부침땅 면적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분수식 발관개체계

분수방법으로 밭에 물을 대는 시설들의 총체. 분수식 발관개는 고랑 물대기, 강우기에 의한 물대기 등과 함께 중요한 발관개방법의 하나이다.

분수식 발관개를 위한 중요한 시설들에는 양수시설과 분수시설이 있다. 양수시설에는 양수기와 전동기를 갖춘 양수장이 있으며 분수시설에는 분수관, 관부속품, 물뿌리개, 이동관 연결토시 등이 있다.

분수식 발관개체계는 저수지, 강, 우물, 굴포, 관개물길을 비롯한 물원천으로부터 양수시설과 분수시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계통을 이루는 시설의 총체로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발관개체계이다.

## 분조

농촌에서 집단생활의 세포이며 생산 및 노력조직의 맨 아래단위.

분조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농촌경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높여주고 공산주의사상을 키우는 집단생활의 가장 합리적인 세포이며 농업근로자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 참가시키는 생산 및 노력 조직의 맨 아래단위이다.

국가농목장과 협동농장들에는 생산부문별로 조직된 농산분조, 축산분조, 과수분조, 잠업분조가 있으며 수리분조, 수산분조, 조림분조 등이 있다.

## 분조관리제

협동농장의 분조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는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내부관리 운영형태.

분조관리제는 김일성이 1965년 5월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였으며 1966년부터 공화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도입 실시되었다.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의 분조들에 일정한 면적의 부침땅과 노력, 농기구, 부림소 그밖의 생산도구들을 고착시키고 국가생산계획에 준하여 정당 수확고계획과 노력일 투하계획을 주어 계획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노력일을 재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분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분조관리제는 농업협동경리에서 노동 및 생산 조직의 단위와 농민들의 집단생활의 단위를 통일시키고 있다. 생산조직 형태와 집단생활의 세포를 옹계 정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농업근로자들을 대규모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 참가시키고 생산을 늘이며 공동경리의 주

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더 잘 무장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 비날론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북한이 자체개발한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북한은 이 합성섬유가 당초 일제치하인 1930년대에 과학자(이승기 박사:북한에 생존)에 의해 발명됐으나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것을 해방후 김일성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독려함으로써 현재 북한에서 면을 대신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이에 대해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체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한 것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한 것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라고 언급하고 있다.

비날론은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한 카바이트 생산공정, 카바이트에 의한 초산비닐합성공정, 폴리비닐알콜제조공정, 방사 및 후처리공정 등 4단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비교적 생산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날론의 품질에 대해서는 “자연섬유나 인조섬유보다 질이 좋으며 용도가 다양한 경제적 섬유”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주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을 위해 1961년 5월 최초로 2.8비날론공장(함남 함흥)을 건설한데 이어 평남 순천에 대단위 종합화학공업단지인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를 건설중에 있다.

## 비무역거래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외화거래.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무역거래와 구별하여 쓰는 개념이다. 비무역거래의 중요대상은 외국여행, 해외에 있는 자기 나라 대사관을 비롯한 대표부의 운영,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들의 이동, 유학생과 실습생의 파견, 기타 경제 및 문화 교류와 관련한 다른 나라 방문 등이다.

비무역거래에서 소비되는 상품들의 가격은 소매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入

#### 4대 자연개조사업

1981년 10월 노동당 제6기 4차전원회의에서 제기, 추진되고 있는 서해갭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 30만정보 간석지 개간, 20만정보 새땅찾기를 종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이 사업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서해갭문 및 태천발전소 건설을 통해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대동강, 대령강 유역의 홍수조절과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총 50만정보에 달하는 간석지 개간 및 새땅찾기 사업을 통해 북한 전체면적의 18%에 불과한 경지면적을 늘림으로써 식량증산을 꾀한다는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976년 10월 노동당 제5기 12차전원회의에서 발관개완성, 토지정리, 토지개량, 다락밭 건설, 치산치수, 간석지개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개조 5대방침」을 결정,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한 자연개조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연개조 5대방침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자 이를 경제건설사업 형태로 변경해 4대 자연개조사업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4대 자연개조사업 역시 추진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해갭문 건설(1986년 완공)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사업추진 초기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여타 경제건설과 마찬가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사업의 추진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나 실적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데서 뒷받침된다.

실제로 이 사업중 공기를 2년여 늦춰 1986년 6월 완공한 서해갭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사업은 아직 추진중에 있거나 별다른 관심을 기

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이 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뿐 아니라 '80년대말 10대전망목표의 하나로 추진해온 30만정보의 간석지 개간이나 20만정보의 새땅찾기 사업은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서해갑문 : 남포시 영남리와 황남 은룰군 송관리 사이의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갑문으로서 공사기간중에는 남포갑문으로 불렸으나 완공직후인 1986년 9월 서해갑문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대동강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4대 자연개조사업이 공식 결정되기 이전인 1981년 5월에 착공됐다. 당초 198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3개사단 규모의 군병력 및 각지에서 동원된 청년돌격대, 그리고 각종 장비를 투입했으나 완공시한을 두차례나 연기한 끝에 공기를 2년여 늦춰 1986년 6월에 완공됐다.

시설규모를 보면 남포 영남리에서 황남 은룰군 피도사이에 폭 14m, 길이 7km의 제방(흙제방 5.2km, 콘크리트제방 1.8km)을 축조하고 피도와 은룰군 송관리간 약 8백m에 3개의 갑문(5천톤급, 2만톤급, 5만톤급) 및 댐을 건설하는 등 총연장 8km의 방조제를 쌓았으며 제방 및 갑문위로 단선 철도와 도로가 부설되어 있다.

이 갑문은 남포항의 접안능력을 제고(2만톤→5만톤 수준)시킨다는 목적외에 서해안에 개간중인 총 30만정보의 간석지중 평남 및 황남의 20만정보(1992. 10 현재 20%개간)에 농업용수 공급, 남포공업지구의 공업용수 확보, 수량조절로 대동강하류 홍수방지, 내륙 수상운수 확충, 남포와 황남도간 교통거리 단축, 남포지역 및 대동강지역 풍치조성, 인공호수에서 양식업 개발 등의 효과를 노리고 건설된 것이다.

특히 내륙 수상운수와 관련 서해갑문은 미림, 봉화, 성천, 순천갑문과 함께 남포~평양~순천~덕천에 이르는 주요 공업, 광업, 농업지역을 운하망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 갑문공사에는 약 40억달러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중 김일성-김정일부자가 수차례 현지지도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1986년 6월 24일 김일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준공식에서 공사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 5만9천8백44명 모두에게 2중 노력영웅 칭호를 비롯한 각종 포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완공후에는 이른바 노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선전하며 주민 및 외국관광객들의 주요 참관코스로 내세우고 있다.

- 태천발전소 : 평북 태천군 대령강에 위치한 북한 최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로서 4대 자연개조사업이 제기된 직후에 착공됐으며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발전소는 압록강의 지류인 자강도의 총만강과 위원강, 그리고 평북의 동천과 남천 등 4개의 강물을 평북 내륙의 대령강으로 수로(터널)를 통해 유역변경시켜 막대한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대령강상에 5개의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북한은 이같은 발전소 건설방식을 자신들의 독창적인 새로운 수력자원 개발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발전용량은 1호발전소 15만kw, 2호발전소 50만kw, 3~5호 발전소 각 3.2만kw 등 총 74만 6천kw로 북한 최대규모(수풍발전소 70만kw 수준)이다.

1993년 10월 현재 태천발전소 공사진척도는 60%정도이며 잔여발전소 건설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 발전소 건설은 통해 전력난 해소는 물론, 홍수방지, 평북지역 농업용수 공급, 인공휴양지 조성, 양어장 건설, 원활한 수상운수(80km의 뱃길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태천발전소 공사진척현황

발전소	위치	설비용량(만kw)	공사진척도
1호	평북 동창	15	81. 8~88. 8 완공
2호	평북 태천	50	81. 8~88. 8 부분완공 (25만kw)
3호	미 상	3.2	미 상
4호	〃	3.2	미 상
5호	평북 박천	3.2	댐 공사중

\* 출처 : '88. 9 조선신보

• 30만정보 간석지 개간 : 4대 자연개조사업 제기 당시에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중 3~4만 정보씩 그리고 1985년부터는 연간 5만정보씩 개간, 1988년 말까지 총 30만 정보(황남 8만정보, 평남북 각 11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무원산하 기상수문국 및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전담토록 하는 한편 1982년에는 황남 제령군에 간석지건설 전문학교를 설립,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하자 198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회의에서 기한을 1993년 말까지로 연장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말 현재 간척대상지역인 서해안의 33만정보중(동해안 2천정보) 토목자재, 장비 및 기술 부족으로 6만여정보를 간척했으며 14개 지역에서 군인, 청년돌격대 등을 상시 5만여명 투입해 총 14만정보의 간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주요 간척사업 추진현황

간척지명	위치	면적(정보)	비고
가도	평북 철산	33,500	85년 착공
정주	평북 정주	12,300	87. 7 착공
증산	평남 증산	8,700	86. 8 착공
대동만	황남 태탄	6,200	87. 6 착공
웅진만	황남 웅진	5,000	87. 7 착공
천수도	황남 강령	1,000	88. 3 착공

• 20만정보 새땅찾기 사업 : 이 사업은 초기에 각종 공한지와 유휴지를 포함해 강·하천부지, 물웅덩이, 논·밭둑 등 경작 가능한 모든 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197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다락밭 개간으로 인한 산사태, 홍수통제 불능 등의 부작용이 확대됨에 따라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새땅찾기 사업 실적으로 내세운 것도 1987년 11월 24일 평양방송을 통해 백두·개마고원일대에서 2만여정보의 농경지를 개간했다고 보도한 것 등 매우 제한적이다.

### 사업총화

기관, 조직 등이 일정기간동안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끝낸 다음 그 기간중에 이룩한 결과에 대해 결산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총화는 사업수행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앞으로의 사업수행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업총화는 그 사업의 성공 혹은 실패와는 상관없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노동당을 비롯한 각급 조직, 단체,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보고형식으로 사업총화를 한다.

###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새로운 공산주의적인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이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사상이다.

3대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혁명이다. 사상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이다.

오늘 사상혁명 수행에서 나서는 기본과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교양개조하며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여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리일으키는 것이다.

기술혁명은 3대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주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노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이다. 오늘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고 있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다.

문화혁명은 노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3대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문화를 창조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이다. 오늘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다그치는 것이다.

#### 4.15 기술혁신 돌격대

4.15 기술혁신 돌격대는 1980년 10월 당시 활동하고 있던 5.19 기술혁신 돌격대를 개편하여 조직된 것으로 기술혁신사업에서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 대오이다.

4.15 기술혁신 돌격대는 모든 공장, 기업소에 조직되어 있으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 창의고안자들이 망라되어 있다.

4.15 기술혁신 돌격대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김일성 생일 70돌을 높은 기술적 성과로서 맞이하는데 있었다.

4.15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조직된 후 1985년 4월 15일까지 27만 8천건의 기술혁신안을 실현하였으며 많은 대원들이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과 국가발명권을 받았다.

\* 북한은 1990년 1월 돌격대 창설 10주년에 즈음해 10년동안 66만 7천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실현시키고 6천여건을 발명했으며 33억 6천만kwh의 전력, 4천여만톤의 석탄, 1백79만3천여톤의 강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 소유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전체성원 또는 집단의 공동소유. 사회적 소유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생산물이 누구에게 차례지는가 하는 것도 생산수단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되는 것만큼 사회적 소유에서 기본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이다.

사회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로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물질적 기초로 된다.

사회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는 1946년 8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요 산업국유화에 의하여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가 창설됨으로써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끊임없이 확대 공고화되었다.

1958년 농촌경리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사회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는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는데 도시에서는 주로 전인민적 소유가, 농촌에서는 주로 협동적 소유가 확립되게 되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조건으로 된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로 발전시켜 전인민적 소유를 유일한 형태로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는 것은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 조건의 하나이다.

### 국·공유 및 사유화 비율

구분 \ 연도		연도					
		1949	1953	1956	1957	1958.6	1958.10
공업	국·공유	90.7	96.1	98.3	98.7	100	
	사유	9.3	3.9	1.7	1.3		
농업	국·공유	3.2	32.0	80.9	95.6	98.6	리단위 통합
	사유	96.8	68.0	19.1	4.4	1.4	
상업	국·공유	56.5	67.5	84.6	87.9	100	
	사유	43.5	32.5	15.4	12.1		

\* 출처 : 통일조선신문사, 『통일조선년감』, 1967~68, p.830.

### 사회주의 경리수입금

북한의 예산에서 세입 구성부문을 칭하는 말. 북한은 1974년부터 세입구성을 사회주의 경리수입으로 총당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수입, 국가기업 이익금, 협동단체 이익금, 감가상각회수금, 관세, 잉여금 등의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거래수입은 상품의 유통마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사회주의 경리수입금중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세입부문이다. 유통마진에 의한 거래수입은 1975년이후 전체 세입의 약 60%를 차지한다.

국가기업 이익금은 각 공장, 기업소가 생산활동을 한 결과 얻어진 이윤중 확대재생산을 위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금을 회수한 것이다.

협동단체 이익금은 각 협동조합 또는 단체가 생산활동을 한 결과 얻어진 이윤의 일부를 거두어 들인 것을 말한다.

## 사회주의 경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분배 이용하는데서 가지는 경제관계와 경제활동부문들의 총체,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많은 경우에 근로대중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업 부문들, 단위들의 전일적인 통일체인 인민경제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종전의 모든 사회의 경제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 특성은 근로인민대중이 그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어 있고 사회경제생활의 전과정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의 요구에 맞게 갖추어지고 발전해 나간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이 특성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의하여 규정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확립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람에게 의한 사람의 착취관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을 경제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함으로써 소유와 노동, 생산과 점유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의 노동을 자신과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전환시켰으며 생산과 점유의 대립을 청산하고 그 과정이 동일한 주인의 관할밑에 그들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실현되게 한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인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이룬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동지적 단결과 협조관계가 지배하며 생산은 인민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문화적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

김일성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였다.

10대전망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한해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억2,000만톤의 석탄, 1,50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유색금속, 2,000만톤의 시멘트, 700만톤의 화학비료, 15억미터의 천, 500만톤의 수산물,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앞으로 10년동안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것이다. 이 웅대한 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전력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으며 기본건설을 다그쳐 가공공업부문들의 생산능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또한 농업과 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키고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는 경제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웅대한 경제건설목표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면 1980년대말에 가서 공업총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무려 1,000배로 늘어나게 되며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에 상응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축성되며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인민의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가 이룩되게 된다.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농촌의 협동화를 한단계 발전시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농촌문제에 관한 종합지침서.

1964년 2월 25일 노동당 제4기 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됐으며 통상 김일성이 제시한 「김일성문헌」으로 선전된다.

이 테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기본과업,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 등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는 ①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②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며, ③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로 부단히 접근시킨다 등 3가지원칙이 제시됐다.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과업에서는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을 위해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라는 「농촌 4화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제시됐다.

그리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 군을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으로 삼으며 농촌경리에 대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등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 또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북한은 「농촌테제」 발표 30돌('94. 2) 행사와 관련,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김일성 서한을 통해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임을 강조하면서 「농촌의 전기화·수도화·비스화·중앙난방화·가스화」를 5대 과제로 설정하였다.

##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하에서 낙후된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 분야와 소유관계, 경제관리 수준에서의 낙후성을 없애고 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견지해야 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원칙.

사회주의 농촌문제해결의 첫째 기본원칙은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원칙은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본원칙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접근 전환시키는 것이다.

## 사회총생산물

일정한 기간(보통 1년동안)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

사회총생산물은 사회적 생산의 견지에서 규정되며 사회적 생산조직의 기층단위들의 생산물의 총계로써 계산된다. 사회적 생산물은 공업, 농업, 건설, 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들에 종사하는 일꾼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다.

사회총생산물은 현물적인 또는 가치적인 표현형태를 가진다. 현물형태에서 사회총생산물은 각이한 사용가치의 생산물들로서 이루어지며 그것들은 재생산과정에서 노는 역할에 따라 크게 생산수단과 소비재의 2대부류로 갈라진다. 생산수단과 소비재사이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재생산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사회총생산물의 현물적 구성의 변동에는 사회적 생산의 각 부분들의 발전과 그것들 사이의 연계의 변화가 반영된다.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총생산물의 구성은 더욱 다양해지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물과 생산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가진다.

가치적으로 볼 때 사회총생산물은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또는 가치형태),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또는 가치형태),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또는 가치형태)로 이루어진다. 사회총생산물의 가치적 구성부분들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생산방식에 따라 다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또는 가치형태)와 자기를 위한 노동의 가치(또는 가치형태)는 생산에 대한 물자 및 노력보수의 지출에 해당하는 원가총액이며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또는 가치형태)는 순소득의 총액 즉 사회순소득이다.

사회총생산물의 장성속도는 사회의 경제제도에 크게 의존되며 사회적 노동 생산능률이 높고 생산일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라진다.

### 사회총생산액

일정한 기간(보통 1년간)에 창조된 사회총생산물의 규모를 특징짓는 화폐표시 생산고지표. 사회총생산액은 일정한 기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의 총량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생산고지표이다.

사회총생산액은 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진행된 생산적 노동의 결과를 생산물에 이전된 과거 노동몫까지 포함하여 가장 개괄적으로 반영한다.

사회총생산액 지표는 나라의 경제발전수준과 그의 동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총생산액 지표는 또한 사회적 생산의 구조와 균형을 밝히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총생산액 지표는 국민소득, 사회적 노동생산능률, 인구 한 사람당 생산액과 같은 일련의 중요한 경제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널리 이용된다.

사회총생산액 측정의 기본적인 방법은 부문별 총생산액 총화법이다. 이 방법은 모든 물질적 생산부문들의 총생산액을 기계적으로 합하여 사회총생산액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부문별 총생산액 총화법으로 사회총생산액을 측정할 때, 평가가격을 적용하는데서 중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부문들인 공업, 농업, 기본건설 부문총생산액을 부문인도가격으로 계산한다.

부문인도가격이란 생산물을 다른 부문에 넘겨줄 때에 평가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업생산물의 경우에 생산수단은 기업소 도매가격, 소비재는 소매가격에서 유통부가금을 더한 가격이 부문인도가격으로 되고 농업생산물의 경우에는 수매가격이, 기본건설부문에서는 건설물의 결제가격이 부문인도가격으로 된다. 화물운수와 생산적 체신부문 총생산액은 화물운임과 생산적 체신요금으로 계산하고 기자재공급 총생산액, 상업부문 총생산액은 이 부문의 부가금에서 외부에 지불하는 화물운임과 체신요금을 더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사회총생산액은 경제적 원천별 구성요소들을 총화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공업, 농업, 건설생산물의 규모를 최종가격으로 평가하여 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최종가격이란 부문인도가격에 유통부가금을 합한 가격이다. 현물소재적 구성으로 볼 때 사회총생산물은 결국 공업생산물, 농업생산물, 건설생산물의 총체로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이 생산물을 최종가격으로 평가하여 합하면 사회총생산액으로 된다.

경제적 원천별 구성요소총화법은 부문별 총생산액총화법으로 측정된 사회총생산액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용



된다.

## 삭도수송

삭도수송은 탑위에 놓은 쇠줄에 운반기를 걸고 여러가지 짐을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의 하나이다.

삭도수송은 관수송, 벨트콘베아 수송과 함께 3화수송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수송사업에서 삭도수송을 널리 받아들이는 것은 빨리 늘어나는 수송 수요에 수송능력을 세우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삭도수송은 지형조건에 거의 구애됨이 없이 그리고 자재와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짧은 기간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삭도수송을 탄광, 광산, 임업 부문을 비롯하여 경제 여러 부문에서 널리 조직하는 것은 수송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최근 삭도시설들을 현대화하면서 특수형태의 삭도를 많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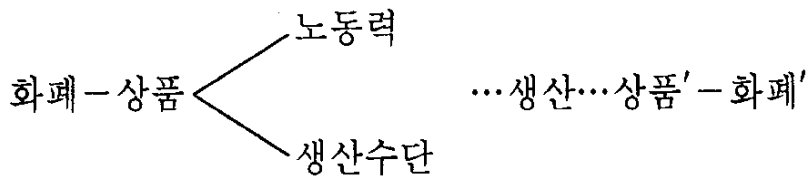
## 산업자본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물질적 생산분야에서 기능하는 자본을 말한다. 산업자본의 본질적 특성은 그것이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산업자본은 자본의 초기 축적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에 따라 생산을 지배하게 되었다. 산업자본은 최초에 화폐자본 형태로 존재하며, 화폐자본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자본, 상품자본으로 점차 전화하면서 자기 운동을 한다.

산업자본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산업자본은 그 순환의 첫단계에서 화폐자본을 상품인 노동력과 생산수단으로 전환시키고 제2단계인 생산자본단계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제3단계인 상품단계에서는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여 잉여가치를 실현한다.

산업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만이 산업자본가와 대부자본가에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기본형태를 이루며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간의 착취적 관계와 계급적 대립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 3대 수송방침

원활한 수송수요를 위해 「집중수송」, 「연대수송」, 「집합수송」을 진행하는 노동당의 주체적인 수송방침이다.

집중수송이란 중량화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중간 정차역없이 직통으로 수송, 운행시간을 단축하며 보다 많은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다.

연대수송은 철도, 자동차, 배 등의 운송수단들을 서로 연계시켜 화물을 나르는 것을 말하며, 집합수송은 화물을 싣거나 하역시 작업을 기계로 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함(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이 전면에 나서고 이미 나라의 공업화가 실현된 기초위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새로운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중요한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단결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앞당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강령을 직접 투쟁구호로 제기하고 실현해 나가는 대중적 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킨 보다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경제문화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진 기초위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 3대혁명붉은기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과 당창건일 및 정권기념일,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수여되는데 1993년 9월 현재 「2중 3대혁명 붉은기」를 받은 단위는 360여개, 「3대혁명붉은기」를 받은 단위는 6,895개로 추계된다.

### 3대혁명소조 운동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

3대혁명소조 운동은 우수한 일꾼들로 꾸려진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을 통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운동이다. 3대혁명소조는 당일꾼, 국가경제기관 일꾼, 과학자, 기술자들과 청년인텔리들로 구성된다.

3대혁명소조의 기본임무는 당의 의도대로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것이며 그들의 활동방법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김일성 수령식 사업방법이다. 3대혁명소조 운동은 당의 혁명적 군중노선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구현한 현대적인 혁명지도방법이다.

### 3백일출어 운동

수산물 증산을 위해 어부들로 하여금 연간 3백일동안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도록 하는 노력경쟁운동.

이 운동은 1959년 김일성이 어업노동자(어부)들은 무조건 연간 3백일간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라고 특별명령을 내린데서 시작됐다.

이 운동에서 3백일을 산정하게 된 것은 1년중 일요일과 공휴일 및 법정휴가일을 제외하면 연중 약 2백94일을 일해야 하는데 6일만 애국노동을 더하면 된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방법은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24시간 계속해서 노동한다는 어로작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어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어부들은 3백일출어 운동을 위해 항구로 돌아오면 고

기를 내려놓고 급히 가족을 만나본 후 다시 바다로 나가야 한다.

### 3차 7개년계획 청년봉화상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수행과정에서 증산 및 절약에 모범을 보인 개인 및 기관 단체에 수여하는 상훈.

1987년 1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제정됐으며 특히 기간산업분야인 수송, 탄광, 광산, 제강소, 화학공장, 건설분야의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이 상훈은 청년계층 근로자들의 생산의욕 감퇴와 노역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이 상의 쟁취를 위한 「제3차 7개년경제계획 완수 청년봉화상쟁취운동」이 뒤이어 전개됐다.

그 결과 1989년 10월까지 서창청년탄광 초급사로청위원회 등 1백10개의 사로청 초급단체 및 부문과 5만 5천명의 청년근로자가 이 상을 받았으며 1990년에도 40여개의 초급사로청위원회가 추가로 상을 받았다.

### 3화수송

수송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 벨트콘베아, 삭도로 짐을 실어나르는 수송형태이다.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 삭도수송의 3화수송을 널리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의 수송체계를 다양화하여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송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 나갈 수 있게 한다.

3화수송은 고정된 두 지점 사이에서 수송공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수송형태로서 수송능력이 매우 크다.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 삭도수송은 수송조건과 생산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수송형태를 선택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고 안정된 수송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수송의 현대화, 집중화, 전문화를 더 잘 실현하여 원료원천지와 소비자 사이의 생산적 연계를 믿음직하게 보장할 수 있게 한다.

## 상품фон드

인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하여 놓은 상품의 묶으로 비상품фон드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상품фон드에는 생산물 가운데서 상품유통기관을 통하여 인민들과 기관, 기업소에 판매(공급)되는 상품들이 포함된다. 상품фон드는 조성목적과 품종구성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상품фон드는 우선 그 조성목적에 따라 지역별, 주민의 계층별, 계절별 상품공급фон드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상품фон드는 도, 시 및 노동자지구 공급용 상품фон드와 농촌지구 공급용 상품фон드로 구분되며 도, 시 및 노동자지구 공급용 상품фон드는 다시 탄광지구 공급용 상품фон드, 임업지구 공급용 상품фон드 기타 특수지구 공급용 상품фон드 등으로 나뉜다.

주민의 계층별 상품фон드는 노동자, 사무원, 농민, 학생,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공급용 등의 상품фон드로 나뉜다. 그리고 계절별 상품фон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공급용 상품фон드로 구분된다. 상품фон드는 또한 그 현물구성에 따라 식료품과 비식료품으로 구분된다.

상품фон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상품을 제때에 정확히 공급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

이고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품фон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지역별, 계절별, 계층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상품을 바로 배정하는 것이다.

### 새기준·새기록 창조운동

낡은 기술경제적 기준을 마시고 새로운 기술경제적 기준을 창조하여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 혁신운동의 한 형태.

새기준, 새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이다. 새기준, 새기록 창조운동은 균중적 운동으로 노력, 설비, 자재 등 생산요소들의 지출과 이용에서 낡은 기술경제적 기준을 마시고 새 기준을 창조함으로써 생산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기준, 새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김일성의 영도밑에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시기부터 천리마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어 힘있게 전개되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새기준, 새기록 창조운동은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새기준, 새기록 창조운동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낡은 기술경제적 기준을 마시고 새로운 기술경제적 기준을 창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적인 투쟁으로 벌어나감으로써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더 높이 지펴 올리는데서 큰 역할을 놓고 있다.

\* 북한은 1981년부터 매년 7~8월을 「새기준·새기록 창조운동 월간」으로 설정, 북한 전역의 공장·기업소 및 개개인의 근로자들간의 노력경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 새땅찾기 운동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침땅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대중적 운동.

새땅찾기 운동을 힘있게 벌여 더 많은 부침땅을 얻어내는 것은 알곡 생산면적과 공예작물 재배면적을 늘여 식량과 경공업원료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새땅찾기 운동을 힘있게 벌이기 위해서는 새땅 개간대상지를 정확히 조사장악하며 대상을 규정한 다음에는 목표를 똑똑히 세우고 노력과 자재, 기술수단들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새땅을 얻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의의가 크며 비교적 쉽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새땅찾기 운동에 자각적으로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산의 3요소

생산의 필수적 요소인 노동력, 노동수단 및 노동대상. 어느 사회에서나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노동력, 노동수단, 노동대상이 결합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노동력을 지출하면서 노동수단을 이용하여 노동대상에 작용함으로써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 부를 생산한다.

사람의 노동력은 생산의 인적 요소이며 노동도구와 노동대상은 생산의 물질적 요소이다. 노동력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정신적 및 육체적



힘의 총체이다. 노동수단은 사람이 노동대상에 작용할 때 이용하는 일체 물건을 말한다. 노동수단에는 기계, 설비, 공구와 같은 생산도구(노동도구)와 생산용건물, 토지, 도로, 운하, 창고와 같은 생산을 보장하는 조건들이 포함된다.

노동수단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생산도구이다. 노동대상은 사람의 노동이 가해지는 일체 물건이다. 노동대상은 탄맥, 산림과 같은 자연그대로의 노동대상과 원자재와 같이 사람의 노동이 이미 가해진 노동대상으로 나누어진다. 생산의 세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다.

### 생산적 소비

물질적 부의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소비. 비생산적 소비와 대응한다. 생산과정은 물질적 부의 창조과정인 동시에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소비과정이기도 하다. 생산적 소비없이 생산과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생산적 소비는 생산과정의 한 측면을 이룬다.

생산적 소비는 비생산적 소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산적 소비에서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소비되어 새로운 생산물이 창조되지만 비생산적 소비에서는 생산물이 최종적으로 소비되고 그 결과 노동력이 재생산된다. 생산적 소비가 이루어지자면 생산요소들이 생산과정에 인입되어야 하며 결합되어야 한다. 생산의 장성은 생산적 소비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비생산적 소비에 비하여 생산적 소비를 늘려야 한다. 당은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축적을 계통적으로 빨리 늘리면서 인민생활의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를 동시에 늘리는 현명한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생산적 소비를 빨리 늘려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고 있다.

## 생산총화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생산계획과제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를 검토, 총화하며 그에 기초하여 옳은 대책을 세워나가는 사업.

생산총화에서는 생산자 대중과 일꾼들이 생산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찾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결심과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생산총화는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인 보장대책을 제때에 원만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한다.

생산총화는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생산총화는 총화단위에 따라 작업반총화, 직장총화, 기업소총화, 부문총화, 전국적인 총화로 나눈다. 생산총화의 기본단위는 완성생산물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 기업소이다. 단위에 따르는 생산총화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해당 단위의 범위안에서 진행하게 되며 윗단위들에서는 생산에 대한 지도와 보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생산총화는 또한 총화시기에 따라 일생산총화, 주 또는 순별생산총화, 월생산총화, 분기계획수행총화, 상반기계획수행총화, 연간계획수행총화로 진행한다. 생산주기가 1년 또는 그이상 되는 생산부문들에서는 생산기술공정별로 총화하는 방법도 있다. 시기별 생산총화는 해당 시기의 생산계획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동시에 연간계획의 성과적 실현을 보장하는데 주되는 목적을 두고 하여야 한다.

## 설비의 만가동

기술공학상 및 경영조직상 한계안에서 설비가동이 최고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 설비들은 기술공학상으로나 경영조직상으로 볼 때 그 가동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것은 설비들이 점검보수와 관련한 일정한 휴지시간을 보장함이 없이는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작업제도와 관련하여도 불가피한 휴지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설비의 만가동은 이러한 휴지시간을 제외한 시간안에서 그 가동이 최고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설비의 만가동은 설비의 시간이용률지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설비시간 이용률이 100% 또는 그에 가까우면 해당 설비는 만가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비의 만가동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늘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 설비의 만부하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설비가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가동하도록 하는 것. 설비의 경부하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설비의 만부하는 설비가 가동하면서도 자기의 능력을 다 내지 못하는 경부하와 구별될뿐아니라 그 과부하와도 구별된다. 설비의 과부하에서는 기술공학적인 허용한계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 성능이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설비의 만부하에서는 기술공학적인 허용한계치 안에서 그 성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 과부하에서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 세금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받아내는 화폐수입. 세금은 화폐 형태로 받아내는데 특징이 있다. 금속화폐제도가 보급되고 조세의 금납화가 보급되면서 조세는 세금으로 많이 불리우게 되었다.

조세제도는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발생하면서부터 생겨나 수천년동안 근로자들을 수탈하는 기본공간이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조세는 전면적으로 금납제로 되면서 세금형태를 띤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한 착취사회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수입의 기본항목으로 되며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수탈하는 수단으로 된다. 자기의 직접적인 재정 수입토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착취사회의 국가는 세금제도를 통하여 통치기구의 유지와 약탈과 전쟁정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국가부담에 의한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성이 더욱 높아진 조건에 맞게 1966년에는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1974년에는 모든 세금을 완전히 종국적으로 없애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들의 세기적인 염원이 빛나게 실현되고 공화국은 세상에서 세금없는 첫나라로 되었다.

\* 북한은 제5기 3차 최고인민회의('74. 3.)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 동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의 세입을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으로 충당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인민군대지원금, 돌격대지원금, 농촌지원금 등 각종 부과금과 물사용료, 전기사용료, 탁아위탁료 등

각종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세금」이란 명칭만 없어진데 불과하다.

## 소유권

일정한 재산을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그 주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점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은 경제적 범주인 소유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을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유권은 계급사회에 이르러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자기에게 유리한 소유관계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 소유관계가 법률적 관계로 됨으로써 재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자로 되며 따라서 소유권자가 재산을 점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경제적 행위는 법적권리로 되고 국가강제력에 의하여 보호되게 된다.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점유, 이용, 처분의 권리이다. 점유는 물건을 실지로 차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은 물건의 유용한 성질을 사회적 생산이나 개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 처분은 물건의 법률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예하면 판매, 대여)을 말한다.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나라에는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의 세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국가소유권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단체소유권은 물론 개인소유권도 국가의 보호밑에 있다.

## 속도전

속도전은 혁명과 건설의 전진운동을 저해하는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를 배격하고 혁명과업을 가장 빠른 기간내에 완수하게 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속도전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의 혁명적 지향에 맞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을 계속 벌여나가는 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빨리 전진시키기 위한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속도전을 보장하는데서 기본은 사상문제이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을 다그치고 조직지도사업을 원만히 안받침할 때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으며 높은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할 데 대한 속도전의 요구를 구현할 수 있다.

\* 북한에서의 속도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 총성의 속도 : 6개년계획을 2년 앞당긴다는 목표아래 1974년 1월 20일 김책제철소 건설사업소에서 발기하고 이틀뒤인 1월 22일 북창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다.
- 70일 전투속도 : 1974년 10월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짓는 총돌격전을 벌이자」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1974년 목표를 초과 수행하고 1975년도 생산준비를 갖추기 위해 70일간('74. 10. 18~12. 26) 추진된 시한부 노력경쟁운동이다.
- 1백일전투 : 1978년 1월 안주탄광 결의모임에서 1978년도 경제계획을 10월 10일 당 창건 33주까지 완수하기로 했으나 같은 해 5월 29일 재차 개최한 결의모임에서 계획완수 시점을 정권수립 30주('78. 9. 9)까지로 앞당기기로 하고 「1백일전투」('78. 5. 29~9. 9)라는 구호를 붙였다. 이어 1979년에도 생필품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해 김정일의 지시로 또다시 1백일전투 ('79. 7. 1~10. 8)를 전개했다.
- '80년대속도창조운동 : 권력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경제성장으로 실증시키기 위해 1982년 7월 9일 김책제철소의 쫓기모임을 시작으로 '80년대의 주된 속도전으로 추진됐다.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은 「천리마 대고조의 기세로 '80년대의 속도를 창조하자」, 「모두다 '80년대의 김혁·차광수가 되자」는 구호를 제시했다.

- '90년대속도창조운동 :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90년대까지 연장한 것으로서 1990년 1월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 제시됐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5월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을 제기한 이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수송혁명 200일 전투

김일성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집중수송, 짐함수송, 연대수송의 3대수송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1977년과 1978년 두차례에 걸쳐 벌인 전투.

김일성은 1977년을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 해로 정하고 그해 4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집중수송, 짐함수송, 연대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사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수송혁명 200일 전투를 힘있게 벌이도록 하였다.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전사들은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혁명 200일 전투 기간에 그전에 비하여 매일 평균 4만 6천톤이상씩의 짐을 더 실어날랐으며 집중수송 비중을 17%나 더 높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1978년 정초부터 벌인 수송혁명 200일 전투에서도 혁신적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전투기간 철도수송전사들은 화물수송계획을 103.4%로 수행하였으며 하루 평균 화물수송량은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3만 2천여 톤이나 더 늘이는 혁신을 일으켰다.

수송혁명 200일 전투는 수송사업을 빨리 추켜세워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1979년 10월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백설희 등 4명의 과학자에게 「노력영웅」칭호를 수여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이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한데서 비롯된 대중노력경쟁운동.

전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동원을 독려하기 위해 제기된 이 운동은 경제부진을 주민노력동원을 통해 극복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김정일의 통치기반 강화와 연계시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운동을 김정일이 발기, 지도했다며 김정일의 지도력 선전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 운동은 특히 김일성이 1986년 2월 노동당 제6기 11차전원회의 기간중 5명의 숨은 공로자를 초청, 훈장을 수여하고 이어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위한 평양시 근로자 쫄기모임(1986. 2), 「숨은 공로자대회」(1986. 10)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심적인 노력경쟁운동으로 추진됐다. 북한은 이후에도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운동 10주 기념보고회」(1989. 10), 「전국영웅대회」(1988. 9), 「숨은 공로자 경험토론회」(1991. 9)를 잇따라 개최해 이 운동의 확산에 주력했다.

이 운동 발기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규모의 기념보고회에서는 10년 동안의 성과를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업적으로 부각시키는 가운데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 당의 결사대·근위대가 될 것과 전주민의 영웅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보고회에서는 1989년 10월 현재 중앙과 도, 시, 군에 등록된 숨은 공로자가 모두 1만 5천 5백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식량문제

주식물로 이용되는 식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문제. 식량은 사람들이 유기체로서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특수한 소비재이다. 그러므로 식량문제는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관건적 문제로 된다.

식량이 풍부해야 사람들의 사상의식상태도 더 좋아지고 경제건설의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려나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게 되는 공산주의 분배원칙도 식량을 수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게 되어야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식량문제는 곧 농업문제이다. 자체의 농업을 발전시켜야 농업생산을 늘이고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식량문제, 농업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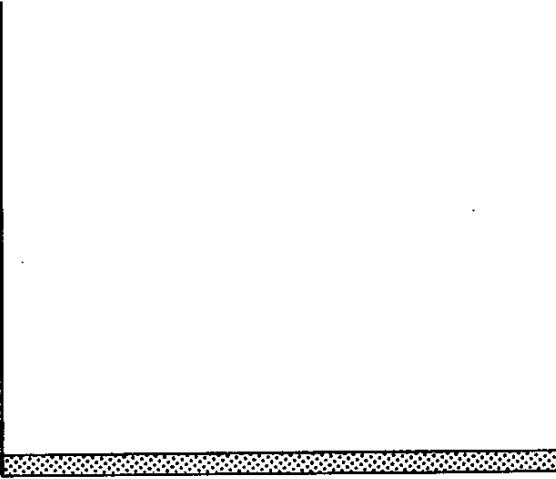
\* 북한은 농업생산의 체감현상의 심화로 매년 식량난이 심각, 식량 부족분의 일부를 중국, 캐나다, 태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절대부족량은 배급량 감소 등 식량 절약시책에 의존하고 있다.

### 최근 식량수급 현황

(단위 : 정곡, 만톤)

연도 \ 구분	총 수요	전년도 생산량	수입량	절대부족량
1991	647	481.2	130	35.8
1992	650	442.7	83	124.3
1993	658	426.8	?	?

\* 출처 : '90~'92년 북한경제종합평가(통일원, 1993. 12)



## 애국미 헌납운동

해방후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이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자기들의 애국적 심정을 담아 쌀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바친 대중적 애국운동.

1946년 3월 토지개혁이 실시됨으로써 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청산되고 밭갈이하는 농민들이 땅의 참된 주인으로 되었다.

당시 황해도 재령군의 김제원농민은 토지를 분여받은 기쁨을 안고 농사를 힘껏 지어 1946년 12월 10일에 있는 재령군 농업현물세 헌납경축대회에서 선참으로 30가마니의 쌀을 애국미로 나라에 바쳤다.

재령군안의 농민들은 김제원농민의 애국적 발기에 호응하여 이날 대회에서만도 830가마니의 애국미를 바치고 대회의 이름으로 김일성에게 충성의 편지를 올렸으며 전국의 모든 농민들에게 애국미 헌납운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1946년말까지만 하여도 무려 1만 8000여명의 농민들이 애국미 헌납운동에 참가하였으며 그들이 국가에 바친 애국미는 수만 가마니나 되었다. 그것은 토지개혁 승리의 첫 정치적 열매였으며 농민들의 애국적 열의의 상징이었다.

## 연대수송

각이한 운수형태들로 서로 맞물려진 수송공정에 따라 짐을 보내는 곳으로부터 받을 곳까지 수송기관이 책임지고 날라다주는 수송방법.

짐을 나르는데는 한가지 운수형태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철도, 자동차, 배 등 여러가지 운수형태를 이용하기도 한다. 연대수송에서는 운반노정이

운수형태들 사이에 잘 맞물려져야 수송의 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통과능력이 제한되는 철도구간에서 자동차나 배와의 연대수송을 잘 조직하면 철도의 긴장성을 훨씬 풀고 수송수단의 이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짐나르는 기간을 줄이면서도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연대수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연대수송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짐을 찾아내어 연대수송계획을 잘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여러 운수형태들 사이의 수송공정이 합리적으로 맞물리도록 맞물림다짐표를 잘 짜야 한다.

그리고 통일적인 연대수송지휘체계를 세워 공장, 기업소들과 운수기관, 운수형태들 사이의 협동동작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연대수송의 요구에 맞게 짐 옮겨 싣는 곳을 잘 꾸려야 한다. 항에서 짐 옮겨 싣는 일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기중기를 비롯하여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을 널리 받아들이고 저장장을 규모있게 잘 꾸려야 한다.

## 연불수출

외상판매의 형태로 진행되는 상품수출. 연불수출은 수출무역의 한 형태이다.

연불수출이 진행되는 경우에 수입국은 상품을 수입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수입대금을 지불하지만 지불연기와 관련한 이자도 물게 된다. 그러므로 연불수출은 실제에 있어서 상업신용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연불수출은 일찍이 자본주의대외무역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보급되고 일반화된 것은 현대자본주의하에서이다.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전반적 위기의 심각화에 의하여 한쪽에는 방대한 과잉상품이 체화된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쪽에는 무역수지의 불균

형에 의하여 외화의 부족을 심히 느끼고 있는 나라들이 생긴다. 이리하여 과잉상품을 가진 나라들은 외화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나라들에 연불로 상품을 수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주의하에서 연불수출은 주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이중삼중으로 착취하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

사회주의나라들도 일부 연불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이 하는 연불수출은 그 성격이 자본주의나라들이 하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하여 연불수출을 한다.

## 연안무역

강하천 또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들의 가까운 지방기관 또는 민간단체들 사이에 진행되는 상품교역으로서 연안무역은 변강무역의 한 형태이다.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연안일 때 그것을 연안무역이라고 한다. 연안무역에서는 상품을 주고받는 지점이 따로 규정되지 않으며 수송과 짐을 주고받는 방법도 합의에 따라 규정된다. 연안무역을 위하여 지방기관 상호간에는 필요한 상품목록을 교환하며 대금결제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다.

연안무역은 나라들 사이의 민간무역거래를 확대하며 국가무역을 보충하는 하나의 형태이다. 이 무역형태는 수출입거래의 기동성을 보장하고 운임을 절약할 수 있게 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 인민들 사이의 이해와 친선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연안무역은 제한된 품종과 수량의 상품을 취급하지만 무역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무역형태로 될 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도들에서 변강무역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 연합기업소

일정한 생산물 생산에서 생산기술적으로나 관리경영상으로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기업소들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한 기업소 조직형태.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적 분업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이 집중되고 생산의 사회화가 촉진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생산단위들의 연합을 요구한다. 연합기업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기업소 조직형태이다.

종합기업소는 주로 생산공정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연결된 동종기업소들이 하나의 생산경영단위로 통합된 대규모의 기업체로서 통합된 기업소, 직장들이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연합기업소는 주로 생산물 생산에서 생산기술적 연계를 맺고 있는 이종의 기업소들이 하나의 생산경영단위로 연합된 대규모 기업체로서 연합된 기업소들이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다.

연합기업소는 그 조직형식으로 볼 때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인민경제발전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큰 기업소를 기둥으로 하고 그와 생산기술적으로 연관된 여러 부문의 기업소들을 망라하여 조직한 것이다. 여기에는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또는 건설부문에서 조직한 연합기업소들이 속한다.

다른 하나는 인민경제적으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동종의 기업소들을 기둥으로 하고 그에 복무하는 보장부문의 기업소들을 망라하여 조직하는 것이다. 석탄공업과 광업부문에서 조직한 연합기업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 주요 연합기업소 현황

구 분	공 장 명	소 재 지	주 요 생 산 품
금 속	김 책 제 첼	함북 청진시	선철·강철·압연강재
	황 해 제 첼	황북 송림시	강철·압연강재
	천 리 마 제 강	남포시	강철·특수강·압연강재·강판
	성 진 제 강	함북 김책시	강철·압연강재
광 산	안 주 탄 광	평남 안주	유연탄(갈탄)
	무 산 광 산	함북 무산	철광석
	해 산 지 구 광 업	양강 해산시	동
일 반 기 계	대 안 중 기 계	남포시	발전설비·탄광설비·채굴설비
	북 중 기 계	평북 용성	압연기·디젤엔진
	낙 원 기 계	평북 신의주	굴착기·기증기·프레스
수송·농기구	6월 4일 차 량	강원 원산시	객차·화차
정 유·석 유 화 학	승 리 화 학	함북 나진시	휘발유·중유·경유
	남 흥 청 년 화 학	평남 안주	나프타분해·요소비료·고압폴리에탈렌
화 학 섬 유 비 료	2.8 비 날 론	함남 함흥시	가성소다·카바이트·살충제·농약·비날론
	순 천 비 날 론	평남 순천시	비날론·염화비닐·카바이트·메탄올
	청 진 화 섬	함북 청진시	스포·인견사·합성수지
	신 의 주 화 섬	평북 신의주	스포·인견사
	홍 남 비 료	함남 함흥시	과린산석회비료·유안비료·질안석회
	사 리 원 카 리 비 료 (건설중)	황북 봉산군	카리비료·알루미나·시멘트
시 멘 트	순 천 시 멘 트	평남 순천시	시멘트
	상 원 시 멘 트	평양시 상원군	시멘트

## 영양단지

농작물을 빨리 싹틔우고 모종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부식토나 퇴비 등 영양분이 많이 섞인 흙으로 만든 모판.

한국의 농촌에서는 주로 비닐이나 종이컵 등을 이용하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용기의 구입이 여의치 않아 대부분 나무로 만든 틀을 이용한다.

영양단지를 이용한 작물재배방법은 일손이 많이 가는 단점이 있으나 튼튼한 모종을 빨리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씨앗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북한이 농산물 증산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주식인 옥수수 재배에 이 방법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북한의 농민들은 3월 중순경부터 시작되는 농사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강냉이 영양단지찍기」 작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 완충기

사회주의건설에서 경제발전의 한 단계의 과업이 끝났을 때에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을 보충, 정비, 재편성하는 준비시기를 말한다.

\* 북한은 제 1차 7개년계획('61~'67)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자 3년간 연장하였으며 그후 6개년계획('71~'76) 이후 1년간, 제 2차 7개년계획('78~'84) 이후 2년간을, 그리고 제 3차 7개년계획('87~'93) 이후에는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하였다.



## 외자도입

외자도입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형태의 자본도입으로 이루어진다. 직접투자는 새끼회사와 지점의 설치, 현지기업의 매수, 현지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구입, 합병에 의한 새 기업의 설치 등으로 진행되며 간접투자는 대부금(정부, 민간 자본), 외채증권투자 등으로 실현된다.

외자도입이란 말은 본래 후진국 개발론자들에 의하여 조작되었다. 그들은 후진국들이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빈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본을 해결하는 방도는 내자 조달과 외자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외자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교하는 것은 경제적 침략을 통하여 정치적 예측의 올가미를 들썩우며 식민주의자들의 야욕을 충족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 외화벌이 사업

경제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화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제활동.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극심한 외화부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동원가능한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토끼기르기, 파철수집 등 이른바 「좋은 일하기운동」의 형태로 추진되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사금캐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각급 공장, 기업소에서는 청장년들(26~30세)을 대상으로 외화벌이 돌격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돌격대는 1974년 12월 김정일의 지시로 각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 직속으로 조직되었는데 지역적 특성에 맞춰 금 은 등 귀금속 채취, 박하재배, 자수정가공, 산삼 등 약초캐기, 산짐승잡이 등으로 외화벌이에 동원된다.

또한 외화벌이 사업에는 개인은 물론 당정기관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즉, 북한은 1980년대 중반이후 당정산하의 각 부서, 무역회사, 해외공관 등에 외화벌이 사업의 목표량을 하달하고 실적을 점검해 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당정기관들은 무역업무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산하에 별도의 무역회사를 설치하는가 하면 외화벌이 사업을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사회안전부가 산하에 동흥무역상사를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북한외교관들이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밀수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 낯설지 않다. 북한외교관들의 밀수행위는 1971년 6월 이집트주재 공관원이 면세품을 암시장에서 밀매한 혐의로 이집트에서 추방된 이래 1993년 2월 말 현재 38개국에서 총 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밀수외교의 빈도는 1970년대에 28건에서 1980년대에 43건으로,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16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이 붕괴됨에 따라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자 최근에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그림판매, 아편 등 마약류 밀매, 교회를 이용한 외국인 현금강요, 해외동포 방북사업의 제한적 운용, 북한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각종 서비스요금 및 체재비 인상 등이 구체적 사례이다.

특히 아편 등 마약류 밀매는 적은 노력으로 확실하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관들의 밀수행위와 함께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천m 이상되는 산간오지에 약 5백정보의 양귀비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992년도 한해동안 양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등지에 약 4백정보의 양귀비 재배농장을 조성, 2백kg 정도의 생아편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양귀비는 전담관리부대의 특별경비하에 일괄수거되어 함흥제약공장과 나남제약공장(청진) 등지에서 아편으로 정제, 가공되어 외교관 및 무역요원들에 의해 세계 각국으로 밀수출된다.

## 우리식대로 살아가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노동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전투적 구호.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할 정세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식대로 살아가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였다.

「우리식대로 살아가자」라는 당의 전투적 구호에 관통되어 있는 근본정신, 기본요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식대로 살아가간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혁명과

인민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첫째로,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혁명의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간다는 것이며 셋째로, 어떤 문제든지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로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당의 확고한 입장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혁명적 구호이다.

###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운동

1950~60년대에 추진됐던 천리마운동을 1990년대의 상황에 원용해 주민들을 긴장상태에서 총동원하려는 군중운동.

1993년 5월 11일 조국해방전쟁승리(휴전협정체결) 40주년에 즈음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구호를 발표하는 가운데 오늘의 정세를 난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전체 주민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어나갈 것을 촉구함으로써 최초로 제기됐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구호발표문에서 “현정세는 전당, 전민, 전군이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발휘한 영웅적 투쟁정신, 준전시기간에 양양된 혁명적 열의와 총동원 기세를 계속 견지하며 당의 두리에 철통과 같이 뭉쳐 원수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저지 파탄시키고 경제건설 국방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난세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들이 긴장된 자세로 우리식 사회주의 총

진군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은 내용면에서 체제고수를 위한 주민 사상무장 강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민 노동력 제고 등 두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다.

체제고수를 위한 주민 사상무장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민 사상 교양방법을 대체로 답습하는 가운데 체제고수를 위한 주민들의 사상적 각오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민 노동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속도 창조운동이라는 새로운 노력경쟁운동을 제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속도 창조운동은 북한이 이 운동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을 처음으로 밝힌 노동당 중앙위원회 구호발표문에서 「모두 다 떨쳐나서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속도를 창조하자」는 구호를 제시함으로써 구체화됐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속도 창조운동의 목적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력으로 전례없이 빠른 진군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면서 특히 이 운동의 추진과정에서 기술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이 각종 노력경쟁운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과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속도 창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체제고수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당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과 함께 김정일시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변혁기를 맞아 김정일의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한 새로운 통치방식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정치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을 김정일시대의 주된 군중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1950~60년대에 천리마운동을 통해 거두었던

성과를 재현코자 하는 것이다.

## 위탁가공

일정한 제품의 가공을 남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는 제품 가공방법으로 임가공 또는 샅가공이라고도 한다.

위탁가공의 주되는 특성은 가공을 위탁하는 측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고 위탁받는 측은 그 가공만 담당하고 해당한 비용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가공은 국가 유일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다.

위탁가공에는 기관, 기업소들 사이, 개인들 사이, 개인과 기업소 사이, 국가들 사이에 서로 제품가공을 의뢰하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위탁가공은 공업제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여러 나라들 사이에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작을 실현하는데서도 위탁가공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고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생산소비적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들 사이에는 위탁가공이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생산조직의 보충적 방법으로 이용된다.

국영기업소들 사이에도 이러저러한 요인들로 하여 한 단위에서는 설비들의 가공능력에서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단위에서는 원료, 자재는 가지고 있으나 가공능력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계획상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자유주의적으로 제품가공조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생산과 관련한 사회주의 국영기업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협동생산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으로 된다. 그러나 개별적 근로자들을 직접 상대하여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보장해주는 편의봉사부문에서는 위탁가공형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위탁가공무역

위탁자가 보내주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대로 다시 수출하는 무역거래방식.

위탁가공무역은 가공무역의 한 형태이며 수탁가공무역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위탁가공무역거래에서 수송되는 원자재와 가공수출되는 제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속하며 가공도중의 위험도 위탁자가 부담한다.

수탁자는 다만 임가공비만 받게 된다. 이 때 가공비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수입원자재의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가격과 수출가공품의 배위에서 넘겨주기 조건가격간의 차액과 같다. 위탁가공무역은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하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하며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위탁가공무역은 수탁자의 생산기술적 수단들과 노동력,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수출을 높이고 대외시장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가공무역은 상대방의 값싼 노동력을 무제한 착취하며 원료 및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조업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 기업소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넣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문과 기업소들은 많은 경우에 외국자본의

간섭과 통제밑에 들어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거래는 1991년말부터 시작되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품목도 봉제인형, 바지, 셔츠, 스웨터, 자켓 등 다양화되고 있다.

### 남북간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

(단위 : 천\$)

연 도	건 수	북 → 남	남 → 북
1991	1	22.8	13.4
1992	10	556	413.6
1993	44	4,384.6	3,610.7
1994 (1~4)	34	7,222.8	4,806
총 계	89	12,186.2	8,842.7

\* 출처 : 남북교류협력동향 제 34 호(통일원, 1994. 4)

### 유무상통의 원칙

매개 나라가 여유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고 없거나 모자라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해결받는 무역의 일반적 원칙으로 유무상통의 원칙은 나라들 사이의 대외무역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원칙이다.

유무상통의 원칙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매개 나라는 자연경제적 조건도 다르고 생산력 발전수준과 과학 기술 발전수준도 다르며 따라서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품종과 양도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기본적인 것,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거나 아직은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대외무역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유무상통의 원칙은 사회주의국가의 대외무역의 기본목적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나라 대외무역에서 유무상통의 원칙은 부등가교환을 배제하고 서로 돕는 것을 중요한 요구로 내세운다.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하는 대외무역에서는 보다 발전된 나라가 덜 발전된 나라에 자기의 상품을 비싸게 팔거나 덜 발전된 나라의 제품을 낮게(싸게) 사오는 일이 없으며 무역거래과정에서 서로 공정하게 이득을 보고 서로 상대방 나라에 보탬을 주는 것으로 된다.

대외무역에서 유무상통의 원칙이 관철될 때 매개 나라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은 더욱 촉진되고 인민생활은 더욱 빨리 향상될 수 있다.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한 대외무역은 진정으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 실현되는 나라들 사이에서만 원만히 관철될 수 있다.

따라서 유무상통의 원칙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중요한 무역원칙으로 된다. 부등가교환과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한 이윤추구가 대외무역의 기본목적으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대외무역에서 유무상통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

## 유색금속

금, 은, 동, 연, 아연 등 색깔이 있는 금속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철과 철합금류를 흑색금속으로 표현하는데서 이에 대칭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70여개에 달하는 유색금속의 원소를 중금속, 경금속, 희

유금속, 귀금속 등으로 나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유색금속이 북한 전역에 비교적 많이 매장되어 있어 유색금속공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2백일전투

심각한 경제난 타개와 함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의 주요 시설공사를 기한내 완공키 위해 추진된 시한부 노력경쟁운동.

1988년 2월 20일 김일성이 주재한 당정치국회의에서 제시됐으며 1988년 9월 9일 정권창립 40주까지를 기한으로 추진됐다.

북한은 이 운동 발기직후 10만명의 주민을 동원한 평양시 군중집회를 시발로 각 지역별 군중집회를 잇따라 개최(3월 8일까지 37회)하고 신문, 방송 등에 이를 선전하는 등 2백일전투에 대한 홍보와 전주민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와 함께 시인, 예술가들에게도 이 운동을 고무, 찬양하는 시, 가요 등을 창작케 하는 한편 인민반조직을 총동원해 군중정치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부추기기 위해 이 운동 발기 직후인 1988년 2월 27일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시 청년학생 횃불모임을 열고 총성의 2백일전투 청년결사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각급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적을 점검하는 「2백일전투기록장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은 2백일전투의 시한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각종 건설공사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1988년 9월 「전국영웅대회」를 통해 2백일전투에 이어 제2차 2백일전투를 개최기로 결정, 이 운동을 1989년 4월까지 연장했다.

북한방송들은 2차례에 걸친 2백일전투에 대해 이 기간중 평양축전관련시설을 완공한 것을 비롯해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1단계공사(1989. 10 완공),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1단계공사, 발전용량 1백kw 내외의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김책제철 확장공사 등의 공정을 완공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기계설비를 주인답게 알뜰히 정비하고 효과있게 이용하며 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개조하여 생산능력과 기술장비 수준을 높여나가는 대중적 설비관리운동.

김정일은 1961년 4월과 5월에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찾아 공구직장에 있는 26호 선반을 친히 다루면서 기대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알뜰히 거두고 다루는 문제로부터 계획적으로 보수하고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설비관리의 전반에 걸쳐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고 그것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이 운동은 평양방직기계공장 노동자들이 추켜든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으로서 1982년 6월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광범한 대중을 설비와의 사업에 불러일으키는 대중적 설비관리의 훌륭한 방법일 뿐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참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은 첫째로,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주고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일하는 모양)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이 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은 온 나라 노동계급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계설비들을 원상태로 복구정비하고 대담하게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는데 있다.

셋째로, 모범기대 창조운동에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집단적인 투쟁을 벌여 모범기대작업반을 2중모범기대작업반으로, 모범기대직장, 공장을 2중모범기대 직장, 공장으로 끌어올리며 이 운동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확대하여 나라와 인민의 재부를 애호관리하는 전사회적 운동으로 벌여나가는 것이다.

### 「26호 모범기대」 칭호 수여 현황

(’91. 7. 기준)

모 범 기 대 칭 호				모 범 기 대 공 장 영 예 상
선반(기대)	작 업 반	직 장	공 장	
1,027,000대	98,500개	9,450여개	4,830개	300여개

###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

인민경제의 주요대상들에 나가 걸리고 있는 긴급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기동성있게 풀어주기 위하여 무어진 과학기술집단.

이 돌격대는 1978년 2월 17일 인민경제의 주공전선에 유능한 과학자들로 돌격대를 무어 파견함으로써 그 이름을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는 각이한 전문을 가진 과학자, 기술

자들로 무어졌다.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속도전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경제의 주요대상들에서 걸리고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집단의 창조적 지혜를 모아 전투적으로 풀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는 무어진 이래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1980년 1월부터 10월까지 단 10달 동안에만 하여도 260건의 가치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370여건의 과학적 발명과 새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또한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 활동을 통하여 과학연구사업이 현실에 더욱 발을 붙이게 되었으며 과학연구기관과 과학자들 상호간 그리고 과학자들과 생산자들 사이의 창조적 협조가 더 잘 보장되고 과학연구성과들이 생산에 보다 빨리 도입되게 되었다.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는 인민경제의 주요부문에 파견되어 나라의 주체적인 과학발전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2천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

'80년대 전망목표를 원용해 2천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중장기 과학기술개발 계획.

2천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는 1991년 10월 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2000년까지 수학 등 기초과학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컴퓨터, 원자력이용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금속, 전자, 기계공업, 경공업, 농업 등 산업 전부분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2000년까지 연간 GNP의 5%를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해 박사, 준박사 등 2백만명의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하고 UNDP(유엔개발계획) 등 유엔산하 과학기술기구와의 교류 증대 및 지원기금 확보로 선진기술 도입에 주력하며 연구단지 조성 및 공장기업소 등 현장연구소의 현대화 등 연구환경의 개선 등을 단계적 목표로 세웠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992년 7월 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태와 관련해 종합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기계설비의 현대화 수준, 석탄 및 광물생산량, 알곡 정보당수확고, 성장수준 등을 설정한 주요 기술, 경제적 지표와 함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질해야 할 60개의 경험과제 및 2백개의 대상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계획은 전자, 기계, 열, 생물, 화학공학 등 북한의 과학기술 부문에서 취약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개발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예컨대 전자자동화공학부문에서 집적회로(IC)와 산업용 로봇 개발, 기계공학부문에서 기계설비의 자동화, 대형화, 고속화, 연료·원료·동력 등 에너지부문에서 광산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북한은 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 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1991. 7~1994. 6)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 계획이 끝난 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단기적인 과학기술발전 계획을 잇따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북한이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했던 제 1차 3개년계획(1988~1990)에 이어 1991년 7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 노선.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 요구이다.

자기 인민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제발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경제를 건설할 수 있고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매개 나라는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여야 인민들에게 더 잘 복무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을 수 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말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의 목표는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이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 세운다는 것이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대규모 사회주의경제의 필수적 요구이다.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그리고 경영활동을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 세워야 생산이 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자립적인 경제체계와 현대화된 기술수단들이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회주의경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인체보험

자연재해 또는 불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형성하고 이용하는 국가보험의 한 형태로 생명보험이라고도 한다.

공화국에서 실시하는 인체보험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인체보험은 보험가입자들이 일하며 생활하는 과정에 불상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보험금을 지불해 줌으로써 보험가입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한다. 또한 인체보험은 근로자들이 절약하여 조성한 여유화폐소득의 일부를 사회주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밑천으로 동원이용하는데서도 의의가 있다.

## 일용품 공업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경공업의 한 부문.

일용품공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공업부문이다. 일용품공업은 제품의 용도에 따라 가정용품생산, 문화용품생산, 놀이감생산 등의 부문으로, 쓰이는 원자재의 종류에 따라 목재일용품생산, 철재일용품생산, 수지제품생산, 초물제품생산 등의 부문으로 나뉜다.

일용품공업은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종다양하며 지대별, 계절별, 주민계층별로 그 제품에 대한 수요구조가 복잡한 반면에 생산기술공정이 비교적 간단한 특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일용품생산에서는 묽음식생산 또는 대량생산이 많이 적용되며 일용품 전문공장 또는 종합공장의 형식이 많이 도입된다.



ス

## 자력갱생

자력갱생은 독자성과 함께 자주적 입장의 주되는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독자성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자력갱생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자력갱생은 자기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원칙이다.

자력갱생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의존심, 일시적 난관앞에서 주저앉고 투쟁을 포기하는 나약한 태도, 객관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며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것은 자력갱생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자력갱생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그것은 자력갱생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의 본성과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근본요구에 맞는 입장이기 때문이며 또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옹기 반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력갱생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원칙이며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 자연개조 5대 방침

농업발전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에서 힘을 넣어 해결하여야 할 5가지

투쟁과업을 밝힌 방침. 1976년 10월 1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되었다.

자연개조 5대 방침은 첫째로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며, 둘째로 다락밭을 건설하며, 셋째로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사업을 하며, 넷째로 치산치수사업을 하며, 다섯째로 간석지를 개간하는 것이다.

자연개조 5대 방침의 기본과업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있는 40만정보의 밭에 관개를 실시하며 경사도가 16도이상에 달하는 15만~20만정보의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토지정리사업과 토지개량사업을 널리 진행하고 큰불피해를 막기 위한 치산치수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것이다.

자연개조 5대 방침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부침땅을 대대적으로 늘리며 수리화의 성과를 확대공고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연개조 5대 방침은 물질기술적 토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한랭전선을 비롯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 작업반

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직종 또는 여러 직종을 가진 생산자들이 일하는 기업소내부의 기본생산단위이며 집단생활의 거점.

작업반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계획을 직접 집행하고 생산활동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말단사업단위이다. 그러나 공화국 협동농장의 경우에는 말단생산단위가 작업반이 아니며 분조이다. 협동농장작업반은 공장, 기업소들의 직장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분조가 작업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작업반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성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협동농

장작업반에는 공장, 기업소 직장과 같이 관리성원으로 작업반장과 함께 통계원, 기술지도원들을 가지고 있다.

공장, 기업소 작업반은 기업관리에 대중을 널리 참가시키고 그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키우는 집단생활의 거점이다. 작업반은 작업반성원들의 책임성과 자각성에 기초하여 밀접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노동조직, 생산조직의 한 형태이다.

작업반의 기본형태는 전문작업반과 종합작업반이다. 작업반을 어떤 형태로 조직하는가 하는 것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기술적 특성에 의존한다. 전문작업반은 같은 직종의 생산자들로 조직한다.

종합작업반은 기본직종생산자를 중심으로 하여 연관된 여러 직종의 생산자들로 조직된다. 종합작업반은 각이한 기능을 가진 생산자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 자연을 개조하며 생산과 건설을 기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우월성을 가지는 반면에 전문기술기능을 높이는데서 제한성이 있다.

작업반의 규모는 기술공정에 따르는 소요노력과 생산조직방법, 생산의 기계화와 자동화 수준, 작업계획량과 그 수행기간, 작업반장의 사업능력에 의존한다. 작업반의 기본임무는 작업반집단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이며 맡은 계획과제를 언제나 어김없이 수행하여 기업소의 계획수행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다.

## 재가공

공업에서 1차가공단계 이후의 모든 가공단계를 말한다.

재가공은 공업기업소들에서 오작품 또는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합격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가공의 기본내용은 가공원료를 다시 가공하여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재가공은 그 순차에 따라 2차가공, 3차가공 등으로 구분된다.

## 재수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제3국에 다시 수출하는 무역의 한 형태. 되거리무역에 속한다. 재수출국은 중개자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재수출은 무역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의 하나이다. 재수출무역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그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산 상품을 자기 나라에 들여오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되파는 경우이다. 이것이 순수한 중개무역이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자면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이 다같이 맞물려져 있어야 한다.

중개무역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고 재수출품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심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산 상품을 일단 자기 나라의 관세영역안에 들여온 다음 다시 제3국에 되파는 경우이다. 이 방식의 재수출무역은 재수출을 위해 상품을 사기는 하였으나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이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을 예견하고 의식적으로 되파는 시기를 미루거나 국내수요를 위하여 수입하였던 상품을 다시 다른 나라에 되팔아야 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화국에서 하는 재수출무역은 대외무역의 폭을 넓히고 그것을 다각화, 다양화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외화를 더 많이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최근년간에는 보다 많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이 재수출무역형태를 이용하고 있다.

## 재정통제

사회주의국가가 재정은행기관들을 통하여 수입금을 받아들이며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 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화폐적 통제.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통제는 노동계급의 독재기능을 실현하는 국가가 경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통제의 중요한 형태이다. 재정통제는 화폐적 공간을 통한 통제라는 점에서 법적 행정적 통제와 같은 다른 국가적 통제형태들과 구별되며 재정적 공간의 이용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통제라는 의미에서 은행통제와도 구별된다.

재정통제는 사회생산물과 자금의 양적, 시간적 일치성을 전제로 하여 사회생산물의 계획적 생산과 유통 그의 절약적이며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로서 사회생산물의 생산과 분배, 유통과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행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합법칙적 요구로 나선다.

재정통제는 재정은행기관들과 재정부기사업을 맡아하는 기관, 기업소 부서의 기능에 의하여 주로 자금의 공급과 지출, 국가예산납부, 이윤분배와 같은 재정적 공간을 통하여 실현된다. 재정통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설비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이도록 자극하며 근로자들의 창발성을 높여 계획을 완수 및 넘쳐 완수하게 하며 각 기관, 기업소, 매개인이 재정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전인민적 소유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소유.

전인민적 소유에서 기본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이다.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전인민적 소유라고 할 때에는 보통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를 말한다. 전인민적 소유에서의 생산물은 국가소유로서 국가의 관할밑에 처리되며 전체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된다.

전인민적 소유는 노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착취계급의 사적소유를 수탈하여 국가수중에 장악함으로써 발생한다.

공화국에서 전인민적 소유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때 일부 토지가 국유화되고 1946년 8월 주요 공장, 기업소, 항만, 교통운수, 채신, 은행과 같은 주요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 전인민적 소유는 소유권의 대상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는데 따라 전인민적 소유는 끊임없이 확대 발전된다.

전인민적 소유는 협동적 소유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의 강화는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다그치게 한다.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물질적 조건의 하나가 마련된다.

## 전환무역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이 제3국과의 대금결제를 통하여 진행되는 무역. 전환무역에서 매매계약은 수출입을 하는 두나라의 무역업자 사이에 직접 맺어지나 상품대금의 지불에서 제3국의 상인을 매개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에 상품은 제3국을 경유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무역거래자들 사이에 직송된다.

제3국의 상인은 일반중개인과 구별되며 그에게는 해당한 수수료가 지불된다. 계약면에서는 직접거래이지만 대금지불에서는 간접거래의 형식을 취하므로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된다.

## 정성운동

보건, 의료부문에서 대주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대중적 혁신운동. 김일성이 1961년 7월 「전국 보건부문 열성자대회」를 소집, 같은해 2월 흥남비료공장 병원과 함흥의과대학(현 정성대학) 실습생들이 화상을 입은 한 소년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치하(「축하문」도 전달)하면서 이를 정성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함으로써 발기됐다.

이후 이 운동은 경험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선전,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의료기술에서의 집단적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보건 의료부문의 대표적인 혁신운동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편 북한은 1990년 11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60개 대학의 이름을 개명하면서 이 운동의 발원지인 함흥의과대학을 이 운동의 이름을 따 「정성대학」으로 개칭했다. 그리고 1991년 2월에는 이 대학에서 김일성이 정성운동을 발기한 축하문을 전달한지 3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보고회를 열고 전체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들이 정성운동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인식해 이 운동의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이후 「군민일치운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군부대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방법으로 정성운동을 군민일체감 조성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 정춘실운동

상업분야 종사자들의 충성심과 노력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의 한 유형.

이 운동은 1991년 10월 31일 김정일이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인 정춘실(여)이 상업부문에서 보인 충성심과 헌신적 복무정신을 모범으로 내세워 “정춘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모든 일꾼들과 상업부문 종사자들이 따라 배울 것”을 지시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북한은 이 운동을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기 위한 대중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1992년 7월 30일 사설을 통해 정춘실이 보여준 모범은 “당과 수령을 받드는 혁명전사가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빛나는 귀감”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전체 당원, 근로자들이 정춘실 운동을 심화, 발전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정춘실운동의 일환으로 상업부문 종사자들에게 각 세대별 세간살이 목록을 기록한 「우리가정 수첩」쓰기 장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정 수첩은 정춘실이 각 세대별로 가족들의 옷호수, 신발크기는 물론 결혼식, 환갑일 등 상품의 수요 공급에 필요한 집안 행사에 관한 자료를 기록한 장부를 일컫는다.

정춘실이 약 30년동안 활용해 오고 있다는 우리가정 수첩은 김일성이 1964년 4월 전천군 공업품상점을 시찰하면서 이 수첩을 보고 “공산주의 상업의 싹이며 아주 좋은 수요연구방법이자 사회주의 상품공급 방법”이라고 평가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우리가정 수첩은 정춘실운동이 시작되면서 상업부문 종사자들의

필수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정 수첩쓰기 장려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춘실은 현재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으로서 1976년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의원으로 출발해 7, 8, 9기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상업부문에서의 헌신적인 복무로 타에 모범을 보였다는 이유로 김일성훈장과 2중노력영웅칭호를 수여받기도 했다.

또한 정춘실은 북한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훌륭히 보여준 충신, 효자의 전형으로서 숨은 영웅의 모델로 불리고 있다.

### 정치사업과 경제기술사업의 옳은 결합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기술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사업원칙.

정치사업이 인민대중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의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라면 기술경제사업은 계획사업, 기술지도사업, 설비관리사업, 자재보장사업, 재정관리사업 등 근로자들이 경제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초위에서 근로자들이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사업을 조직하고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을 동시에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차 화폐개혁

1992년 7월 14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된 구권과 신권을 1대 1의 비율로 교환토록 한 화폐개혁 조치.

북한정권 출범이후 3번째로 이루어진 이 조치는 1992년 7월 15일을 기해 1백원·50원·10원·5원·1원짜리 중앙은행권을 발행·유통시키며, 1992년 7월 15일을 기해 1979년 4월부터 발행·유통해 오던 1백원·50원·10원·5원·1원짜리 중앙은행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고(구권중 1원·50전·10전·5전·1전짜리 주화는 계속 사용) 새로 발행된 신권을 유일한 지불수단으로 하며, 구권 보유자들을 위해 1992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6일동안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어 주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치는 화폐교환을 위한 세부사항과 관련해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을 1대 1로 하며 화폐유통 및 지불보장을 위해 화폐교환 기간중의 교환한도를 정해 그 범위안에서만 교환해 주며 나머지 구권은 중앙은행의 관련기관에 입금시켰다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구권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거나 화폐교환의 규정과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벌칙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제3차 화폐개혁은 그동안 사용되던 5종의 지폐를 새로 발행하는 5종의 지폐로 1대 1의 비율로 단순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의 모양만 다를 뿐 화폐제도의 내용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조치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는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 또는 기업들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끌어내어 산업자본화함으로써 자본흐름을 원활히 하고 돈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제를 통해 물가인상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됐다.

### 화폐개혁 추이

구분 \ 횟수	1 차	2 차	3 차
일 자	1959. 2	1979. 4	1992. 7
교환화폐 의 종류	주화(3종) : 1전, 5전, 10전, 지폐(6종) : 50 전, 1원, 5원, 10원, 50 원, 100원	주화(1종) : 50전 지폐(5종) : 1원('87. 10부터 유통), 5원, 10 원, 50원, 100원	지폐(5종) : 1원, 5원, 10원, 50원, 100원(주 화 5종 계속 사용)
교환비율	100(구화폐) : 1 (신화폐)	1 : 1	1 : 1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의 구매력을 제고시켜 완전한 사회주의체제로 이행</li> <li>• 「원」의 국제적 위신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화폐유통 체제 확립</li> <li>• 유희화폐 회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의 음성적 소유화폐 회수</li> <li>• 산업자금 확보</li> </ul>

#### 조 · 중 압록강 수력발전회사

북한과 중국이 양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 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

1955년 4월 창설됐으며 회사운영을 위해 매년 교대로 평양 또는 북경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 이사회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건설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의 운영문제 및 신규 발전소 건설문제, 전년도 사업결산과 당해년도 사업 결정 등에 대한 제반문제를 협의한다.

조·중압록강수력발전회사에서 운영하는 발전소로는 수풍발전소(70만kw), 운봉발전소(40만kw), 태평만발전소(19만kw), 위원발전소(39만kw) 등이 있으며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북한과 중국이 50%씩 나누어 사용한다.

그리고 양국은 현재 길림성의 임강과 평북 의주에 각각 30만kw, 10만kw 규모의 수력발전소 2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종합공장

여러개의 전문화된 생산부문의 생산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공장. 종합공장은 결합되는 생산부문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된다. 종합공장에는 우선 원료를 순차적으로 가공하는 생산단위들을 통합한 형태가 있다.

종합공장에는 또한 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거나 폐설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직된 여러개의 생산단위들을 통합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종합공장에는 카바이트를 원료로 하여 비날론, 염화비닐, 비료, 의약품 등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만드는 각이한 생산단위들을 통합한 종합공장이 들어간다.

종합공장에는 또한 공업에서 결합화의 두가지를 다 병합한 형태도 있다. 종합공장에 통합된 생산단위들은 분공장, 종합직장, 직장으로 존재한다. 종합공장에 통합되어 있는 생산단위들은 그 성격에 따라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법인으로 활동하는 단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위도 있다. 그러나 인민경제적으로 생산 및 경영활동과 계획화의 단위는 종합공장이다.

종합공장은 또한 사회적 생산조직의 복잡한 매듭을 거치지 않고 생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하며

공장건설비를 현저히 축감할 수 있게 한다.

종합공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선 종합공장의 기본적인 생산단위들과 보충적인 생산단위를 잘 꾸려 이것들 사이의 생산능력상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원료와 폐설물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직장들을 잘 꾸리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생산공정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일꾼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일꾼들의 조직지도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 주체농법

주체농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그것이 과학농법이라는데 있다. 주체농법은 지대마다 다르고 골짜기마다 다르며 한골짜기안에서도 필지마다 서로 다른 공화국의 기후풍토 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는 영농방법과 방도를 밝혀준다.

주체농법은 농작물의 매 생육단계별로 온도, 영양물질, 물기 등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생물학적 요구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준비를 앞세우고 생산기술공정표를 세우는 등 기술공정을 과학화하고 재배방법도 과학화하고 있다.

주체농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다른 하나는 그것이 집약농법이라는데 있다. 주체농법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끊임없이 높일 수 있게 하는 농법이다.

주체농법은 또한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는 농법이다.

농업생산의 집약화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실현된다.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으로 장비하면 할수록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 능률이 높아지며 영농사업에서 적기적착원칙이 더 잘 준수되어 농작물생육에 유리한 조건이 지어지고 포기농사의 우월성이 충분히 나타난다.

주체농법의 기본요구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것이다. 주체농법은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농법이다.

## 중공업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 중공업은 공업생산물이 재생산과정에서 노는 경제적 역할에 따라 부류별로 분류한 공업의 한 부문이다.

중공업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과 같은 기간적 공업부문들과 임업 등이 들어간다. 중공업에는 석탄공업, 광업 등 생산의 첫공정을 담당한 채취공업부문들과 기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들이 있다. 중공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주로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으로 이용되며 부분적으로는 소비재로 소비된다.

중공업은 인민경제의 주도적 부문이며 그 발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중공업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이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진과 사회주의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을 수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중공업은 경공업에 현대적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경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일 수 있게 하며 농촌경리에 농기계와 비료, 농약, 영농자재들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노동당은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에 따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으며 중공업에 자금과 자재, 설비와 노력을 집중하였다.

## 증산·절약운동

경제난 타개를 위해 증산과 함께 주민들의 내핍을 촉구한 대중운동.

김일성이 1990년 신년사에서 증산, 절약투쟁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같은 해 1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노동당 제6기 17차 전원회의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당전원회의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단위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일데 대하여」를 의제로 상정, 생산정상화를 위한 증산과 절약운동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증산하고 절약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은을 내게 하자」는 구호를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전체 주민이 증산, 절약운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각급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별로 이를 지지하는 궤기모임을 잇따라 개최했다.

그리고 북한은 1990년 3월 김정일의 지시로 이 운동을 고무, 추동하기 위한 「증산, 절약모범작업반운동」을 병행해 추진했다.



김정일은 이 운동을 발기하면서 “생산자, 대중이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고 '9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기 위한 대중운동”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 운동의 성과를 위해 각 공장, 기업소별로 경험토론회, 방식상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자체적인 증산, 절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 운동 시작과 함께 「증산, 절약모범작업반칭호」를 제정, 작업반별 노력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3년 6월 현재 약 5천여개의 작업반에 이 칭호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은 이 칭호 제정과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절약창고 및 청년절약초소를 운용, 증산, 절약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 지방행정경제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지시를 집행」,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작성 및 실행대책수립」, 「지방예산편성과 그 집행대책수립」,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지며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 지방정권기관으로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지방행정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1981년 도(직할시)경제지도위원회로 바뀌었으며 1985년 도(직할시), 시(구역), 군행정 및 경제위원회로 개편하였다가 최근에 행정경제위원회로 개칭되었다.

## 직접무역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두 당사자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의 한 형태로 간접무역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직접무역에서는 거래당사자, 계약당사자들이 각각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로 되며 모든 비용과 위험을 직접 부담한다. 직접무역에는 직접매매의 방식과 직접교환의 방식이 있다. 직접매매방식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일정한 대상들에 대한 개별적인 매매계약에 따라 무역거래가 진행된다.

직접매매방식은 무역거래에서 흔히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무역방식으로 된다. 이와는 달리 직접교환방식은 수출과 수입을 서로 맞물리면서 금액상 같은 액의 상품을 서로 주고받는 거래방식이다. 직접교환방식은 다시 물물교환과 보상무역으로 나뉜다.

물물교환은 금액상 같은 액수의 상품을 서로 대금결제하지 않고 물건끼리 맞바꾸는 거래방식이다. 국제무역에서는 이 거래방식을 바터무역이라고도 부른다.

이와는 달리 보상무역은 같은 금액의 상품을 서로 대금결제하면서 팔고사는 무역거래방식이다. 이것을 구상무역이라고도 부른다. 이 거래에서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출과 수입 계약이 동시에 해결되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대금결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는 상대방나라들에서 외환거래의 제한이 심할 때 수출입의 균형을 적극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된다. 대외무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무역거래방식들을 실정에 맞게 널리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집함수송

규격화된 짐함을 이용하여 짐을 나르는 수송방법인 집함수송은 김일성이 독창적으로 밝힌 노동당의 3대수송방침의 한 부분이다.

집함수송은 짐을 신고부리는 일을 적극 기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짐작업속도를 높이며 운수 수단과 장비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우월한 수송방법이다.

또한 집함수송은 수송의 문화성을 보장하고 노력과 포장재를 절약하며 포장과 수송과정에 생기는 물자의 손실을 극력 없앨 수 있게 하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집함수송에서 기본수단의 하나는 짐함이다. 짐함은 여러가지 짐을 나르는데 쓸 수 있는 만능짐함과 한 종류의 짐만을 전문적으로 나를 수 있는 단능짐함으로 나눈다. 공화국의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집함수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유색금속정광, 시멘트, 화학비료, 양곡, 경공업제품들이 짐함에 의하여 운반되고 있으며 그 수송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エ

## 채취공업

자연부원을 노동대상으로 하여 시초원료와 연료를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

채취공업은 노동대상의 특성 또는 생산방법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공업의 한 부문이다. 채취공업에는 석탄공업, 광업, 원유 및 가스 채굴업, 임업, 어업 등이 속한다. 채취공업은 공업의 사회적 생산단계에서 첫공정을 이룬다.

채취공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대부분이 가공공업, 건설, 운수 부문에서 원료와 연료로 이용되며 일부는 주민들의 소비에 직접 이용된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개발이용하여 다양한 원료와 자재를 자체로 원만히 공급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천리마운동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 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 운동.

천리마운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당의 혁명적 균중노선과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은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킨 공산주의적 교양운동이며 공산주의적 전진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의 혁명적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 주체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려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는 것은 천리마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노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노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노선이 사상개조와 집단적 혁신을 결합시켜 나가는 위력한 대중운동의 형태로 구현된 것이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할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일어났다.

1956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천리마운동이 일어났다.

천리마운동은 공화국에서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었으며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으로 되었다.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천리마운동의 생활력은 우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과정을 빨리 다그치게 한데서 나타났다.

또한 이 운동의 생활력은 그것이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추동력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높은 속도와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할 수 있게 한데서 나타났다.

\* 천리마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 「천리마속도」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 천리마작업반운동 :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 진군운동이다(1959년 3월 남포시 강선구역 소재 강선제강소 진웅원 작업반에서 시작).

- 천리마속도 : 천리마운동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이룩한 경제건설속도. 김일성이 천리마운동을 제기하면서 언급했다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는 구호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평양속도」, 「강선속도」가 천리마속도를 이은 새로운 천리마 속도라고 칭하고 있다.

## 철도의 전기화

전기를 견인동력으로 하는 전기기관차나 전동차로 수송하는 전기철도를 건설하는 것.

철도의 전기화는 커다란 기술경제적 유리성을 가지고 있다. 철도의 전기화를 실현하면 철도선의 통과능력과 수송능력을 빠른 시일안에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기관차는 증기기관차에 비하여 철도선의 통과능력을 2배로 늘일 수 있다.

철도를 전기화하면 또한 연료소비를 줄이고 노력을 절약함으로써 수송원가를 낮출 수 있다. 철도의 전기화는 또한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철도의 전기화는 1948년에 철도수송에서 가장 큰 애로로 되었던 평라선(당시는 평원선)의 양덕-천성 사이와 만포선의 개고-고인 사이의 철도를 전기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철도의 전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전후시기였다.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기간에 양덕-천성 사이의 전기철도가 복구개건되었고, 5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는 신성천-고원, 길주-명천 사이의 철도가 전기화되었다.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는 평양-청진, 평양-신의주 사이를 비롯하여 850km구간을 새로 전기화하였다. 이리하여 중요간선의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그후 6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는 청진-무산, 청진-나진, 평양-마동 사이를 비롯하여 380km구간을 새로 전기화하

였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들어와서 단천-검덕, 길주-혜산, 대동강-덕천, 평양-남포 사이 구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철도구간들이 새로 전기화됨으로써 전기기관차에 의한 일원화 수송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게 되었다.

1994년 2월에 평남 덕천의 칠기산-형봉간 9km, 관평-회둔간 12km 동년 4월에는 평남 개천-순천간 56km 구간의 전철화를 완공하였다.

\* 1994년 4월 현재 철도총연장 5,112km중 전철화 비율은 75%(3,866km)수준에 달하고 있다.

## 청산결제

나라들 사이에 금이나 외화를 주고받지 않고 국가간 통상 및 지불협정에 따라 해당 시기 서로 상대방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상품을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화폐로 계산하고 그것을 돈자리를 통하여 청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결제.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을 살 때에는 해당 상품대금과 관련하여 나라들간에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채권채무는 화물수송비와 관련하여서도 발생하며 대외활동을 할 때 해당 나라에서 쓰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생긴다. 이렇게 발생하는 나라들 사이의 채권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결제방법의 하나가 청산결제이다.

청산결제를 위해서는 쌍방이 협정을 맺을 때에 서로 청산결제은행을 규정한다. 공화국에서 청산결제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



행이다.

청산결제를 위한 협정에서는 또한 서로 맞비기어 결제를 할 항목의 범위, 청산결제 때에 쓸 화폐(청산결제통화라고 한다), 청산잔고의 허용 한도와 그 처리방법, 청산결제통화의 금적내용의 변동에 대처하는 조절 방법 등이 규정된다.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채권채무의 지불협정에서는 청산결제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결제에서 청산결제방법은 국가유일무역제도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대의 무역의 우월성을 반영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쌍방은행의 청산결제돈자리에 서로 허용되는 범위의 채무한도를 정해 놓고 그것을 넘을 때에는 이자를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해안에 쌍방의 합의밑에 상품공급량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결산되지 못한 일부 금액을 연말에 청산결제 돈자리에 올린다. 이 남은 돈에 대한 조절은 빚을 진 나라가 연도말의 빚을 다음해 1/4분기에 일정한 상품으로 보상하든가 혹은 다음 연도의 청산결제돈자리에 넘기게 한다. 공화국은 일련의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도 지불협정을 맺고 무역상품에 대한 청산결제를 하고있다.

## 청산리방법

주체사상과 노동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군중노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대중영도에 관한 공산주의적 지도사상, 지도방법.

김일성은 1959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결

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뒤이어 그 관철대책을 토의하는 평안남도당전원회의를 지도하였으며 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 당위원회사업을 현지지도하는 과정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원칙에서 당적, 국가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과 국가가 언제나 인민대중의 이익을 최고기준으로 삼아 모든 방침을 세우고 관철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나가는 원칙에서 당적, 국가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담당수행해야 할 사업이다.

넷째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옹게 결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도의 통일성과 구체성을 옹게 보장하고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반사업을 추켜세우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다섯째로,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르고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지켜야 할 전략전술적 원칙이다.

여섯째로, 모든 사업을 계획화하여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이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떼어낼 수 없는 유기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청산리정신은 청산리방법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고 청산리방법은 청산리정신에 의하여 규정된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대중영도문제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백과전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 초물제품

초물이란 왕골, 짚, 싸리, 대 등과 같은 식물을 말하며 초물제품은 바로 이러한 초물로 만든 갖가지 물품을 일컫는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외화벌이를 위해 대외무역을 강화하면서 초물제품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개발해 왔는데 이에 따라 북한 각지의 특성에 맞게 갖가지 초물제품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황남 강령의 참대농장과 황북 황주의 초물단지가 초물제품 생산을 위해 조성된 대표적인 곳이다.

참대가 자랄 수 있는 북방한계선에 인접해 있는 강령 참대농장은 강령군 광천리와 부포노동자구 일대의 야산을 중심으로 하여 자라는 수백정보의 참대를 재배, 생산할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건재품, 공예품, 장식품 등 다양한 초물제품(죽세공)을 만들고 있다.

황주 초물단지는 1992년에 조성됐으며 이곳에서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왕골, 싸리, 나무줄기 등을 이용해 모자류, 가방류, 방석류 등 1백여종의 초물제품을 만들며 이중에서 약 60여종은 해외로 수출된다.

## 축적фон드

생산의 확대, 비생산시설의 확장, 예비의 조성에 돌려지는 국민소득부분으로서 소비фон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축적фон드의 현물소재적 구성을 이루는 것은 주로 생산수단이며 일부는 소비재이다. 축적фон드와 소비фон드의 비례는 사회적 생산의 2대부류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제약된다.

근로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

에서는 국가가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발전과 인민생활의 체계적 향상의 요구에 맞게 사회적 생산의 2대부류간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축적 및 소비 펀드를 계획적으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축적펀드를 생산의 확대, 비생산시설의 건설, 예비의 조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확대펀드는 축적펀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며 생산적 고정재산의 확대를 위한 자금공급의 형태로 분배이용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생산확대펀드의 장성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비생산시설의 건설펀드를 동시에 장성시킨다. 예비펀드는 인민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긴장성과 불균형을 미리 막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필요하다.

E

## 토지국유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를 국가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시책. 토지국유화의 목적과 방법은 사회제도에 따라 서로 다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토지국유화는 자본가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일부 사적소유의 토지가 사적소유의 변종으로서의 국가적 소유로 넘어감으로써 이루어진다.

자본주의하에서는 토지의 극히 적은 부분만이 국유화될 뿐이다. 그것은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의 축소가 자본주의제도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국유화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는 조건하에서만 철저히 실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토지국유화는 사적소유의 토지가 전체 인민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소유에로의 전환으로 된다.

토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토지소유에 대한 농민들의 지향과 요구, 계급적 역량관계, 혁명의 성격 등에 관계된다. 지주, 자본가들을 때려 엷고 사회주의혁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게 되며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토지개혁을 통하여 토지를 주로 근로농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국가적, 전인민적 이익에 맞게 이용한다.

해방후 공화국에서는 농민들속에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의 관념과 제땅에서 제농사를 마음껏 지어 보려는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고려하여 토지국유화가 아니라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토지문제를 근로농민대중의 의사와 이익,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결하였다.

## 통화블럭

제국주의국가들이 정치경제적으로 저들에게 예속되어 있거나 추종하고 있는 나라들의 통화와 외화를 자기 나라 화폐제도에 얽매어 놓고 그에 대한 지배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형성하는 통화 및 환자 세력권.

통화블럭은 제국주의자들이 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한 수단이며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화폐금융적 지배체계를 세우기 위한 중요 도구의 하나이다.

통화블럭은 많은 경우에 어떠한 협정도 거치지 않고 이미 저들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거나 추종하고 있는 나라들을 재정금융적으로 규합하는 방법으로 형성된다. 통화블럭에서 지배국은 종속된 나라의 외화거래를 모두 자기 나라에 집중시켜 그 자금을 자기 나라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써먹는다.

지배국은 환자시세를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고정시키며 필요에 따라 변동시킨다. 종속국의 대외무역과 국제결제는 지배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예속되며 종속국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등가교환이 강요된다.

자기에게 유리한 가격과 환자시세를 이용하여 종속국에 마음대로 자본수출을 함으로써 그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며 채무노예화한다. 지배국은 블럭밖에 있는 나라로부터 종속국들이 상품 및 자본을 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들에게 2중 3중으로 결박시킨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전쟁시기에 저들이 견어들이인 방대한 전시 초과이윤과 저장금에 의거하여 자본주의 세계에 달러에 의한 통화적 지배체계를 세웠으며 국제통화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통화블럭을 형성하여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 맞섰다.

## 특허권

자본주의하에서 발명을 한 사람이나 발명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권리. 이 독점적인 권리는 도입이용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처리에 대한 권리까지도 포함한다.

특허권제도는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제도의 산물이다. 자본가들은 기술 까지도 독점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얻고 있다. 자본주의국가는 법에 의하여 특허권제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한다. 특허권이 부여된 제조방법이나 제품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나 그 발명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승인없이 도입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 법에 의하여 곧 중지되며 해당한 배상을 물게되어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새로운 제조방법이나 제품을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독점자본가들에게 고용된 학자, 기술자들이며 따라서 특허권은 사실상 독점자본가들의 것으로 된다. 특허권은 자본가들에게 거액의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된다.

자본가들은 자기 투자가 새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남아지고 쓸모없게 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이용하여 다른 자본가들에 의하여 그것이 생산에 도입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독점으로 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체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나라들에는 특허권제도가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발명을 포함한 모든 기술적 창안들이 국가와 인민의 재부로 되어 있다. 다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기술적 발명과 창의고안이 특허권으로 적용된다.

공화국에서는 발명을 포함한 모든 기술적 창안들을 가능한대로 빨리 그리고 널리 생산에 도입보급하기 위한 대책이 국가적으로 세워져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어느 한 개별적 공민이나 기관, 기업소가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발명의 이용권은 국가에 속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들은 발명을 빨리 생산에 받아들일 의무만을 지니고 있다. 이리하여 새로운 발명은 나라의 번영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적극 복무하고 있다.

### 특혜관세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특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특혜관세에는 어느 일방만이 특혜를 적용하는 일방적 특혜관세와 무역쌍방이 다같이 특혜를 적용하는 호혜관세가 있다.

특혜관세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식민지와 그宗主국 사이 또는 같은宗主국에 속해 있는 식민지들 사이에 적용되어 왔다. 제국주의자들은 특혜관세를 다른 나라 시장에 침투하여 더 많은 독점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五

## 파업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정치경제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노동쟁의의 한 형태.

파업은 투쟁목적에 따라 경제파업과 정치파업, 투쟁규모에 따라 총파업과 부문파업, 투쟁형식에 따라 농성투쟁, 가두시위 등으로 나뉘어진다. 파업은 산업자본주의 시기부터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의식성이 낮았고 투쟁 전술과 형태도 미숙하였기 때문에 파업이 자연발생적으로, 분산적으로 진행되었다.

자본주의의 초시기에 있는 파업들에서 제기하는 요구조건들은 노동자들의 당면한 경제적 요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성발전함에 따라 파업은 점차 조직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한개 공장 또는 지방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한개 부문 또는 전국을 휩쓰는 거대한 규모의 파업으로 발전하였다.

파업은 또한 노동자들에게 단결하여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면 자기들의 정치, 경제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며 나아가서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위해서는 전체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제도 자체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굳게 가지게 한다.

## 판매협동조합

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개조시기에 개인 상인들이 자원적으로 연합하여 만든 협동경리로서 상품의 판매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판매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며 점차 자

체가공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생산노동에 습관되게 하는데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

생필품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생산증대 운동.

이 운동은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이 평양에서 열린 전국경공업제품 전시장을 시찰하면서 각지의 공장 기업소내에 가내작업반을 확대조직하여 부산물, 폐설물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이를 각 시, 군, 구역의 각 매점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토록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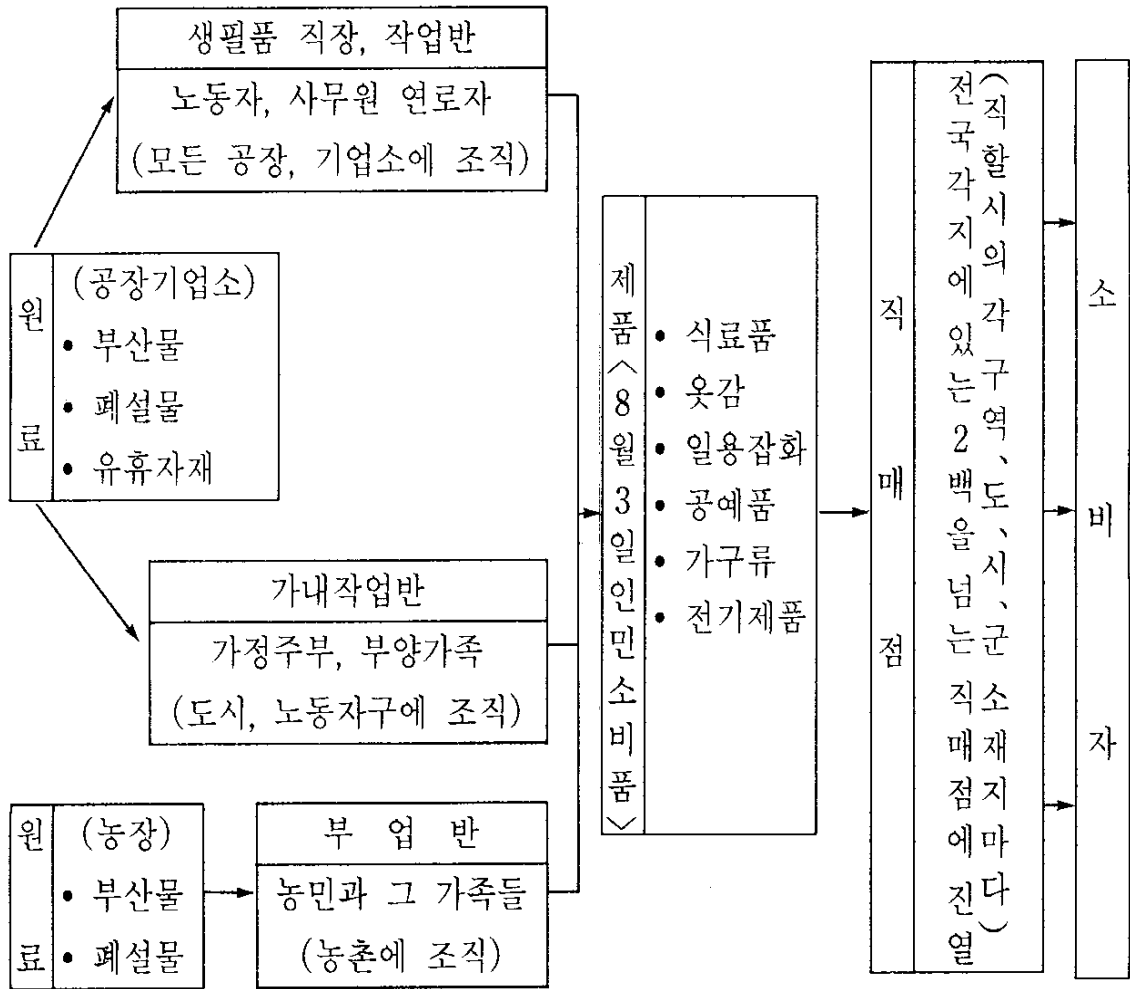
그러니까 8.3인민소비품이란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조직된 가내작업반에서 부산물, 폐설물을 이용해 생산한 모든 생활필수품을 일컬으며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은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내에 가내작업반을 확대 조직해 8.3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경쟁운동이다. 이 운동은 일명 「가내작업반 창조운동」으로도 불린다.

북한은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안에 「생필품직장」, 「생필품작업반」을 조직,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산활동 이외에 부산물, 폐설물을 이용한 생필품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1989년에 전문 4장 17조로 구성된 「8.3인민소비품 생산처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는 한편 5장 26조로 된 「가내작업반 관리운영 규정」도 제정했다.

그리고 1989년 6월 29일 「8.3인민소비품생산 모범군(구역)」 칭호를 제정, 이 운동에 모범을 보인 단위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각 도별로는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감사문을 보내고 있다. 8.3인민소비품의 유통총량은 북한의 국영상업망 유통량의 1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8.3인민소비품 생산공급과정



'80년대 속도 창조운동

전후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 것처럼 새로운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진군운동.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은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행정에서 창조되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탑과 개신문, 김일성경기장과 인민대학습당, 창광거리와 문수거리를 비롯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투쟁을 지도하는 과정에 1980년대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험과 모범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김책제철의 노동계급이 '80년대 속도창조 투쟁의 첫 봉화를 들도록 이끌어주었다.

김책제철의 노동계급은 1982년 7월 9일 '80년대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대가 될 것을 결의하는 모임을 가지고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 속도를 창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이게 되었다.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의 기본목적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제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 있다.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의 본질적 특징은 김일성의 영도밑에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 시기에 발휘한 천리마의 정신을 사상정신적 바탕으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새 환경에 맞게 김정일이 제시한 속도전의 요구를 구현하고 있으며 전례없이 방대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비상이 빠른 속도로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운동이라는데 있다.

## 평양속도

건설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김일성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1958년에 창조된 기적적인 건설속도.

김일성은 1958년 1월에 설계일꾼들과 평양시안의 건설부문 노동자들, 건설부문 지도일꾼들을 만나 평양시에 짓기로 한 7,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으로 훨씬 더 많은 살림집을 지을데 대하여 가르치고 건설부문 노동자들을 천리마대고조어로 불렀다. 평양시 건설자들은 계획과제 7,000세대외에 거의 2배나 되는 1만 3,000세대를 더 건설함으로써 연내로 2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수도건설자들은 1958년 12월 15일까지 살림집 건설결의 2만 세대를 훨씬 초과완수하게 되었다. 수도의 건설자들은 천리마운동의 대고조속에서 14분에 한세대씩,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단 한해동안에 건설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한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다.

그후 평양시 건설자들은 계속 높은 건설속도를 견지하여 일제가 7년 반이상이나 걸려서 건설한 「평양화신」(종전의 제1백화점)보다 23배의 크기를 가진 대극장을 1년 남짓한 기간에, 일제가 7년이나 걸려서 건설한 대동교의 2.5배나 되는 옥류교를 1년동안에 건설하였으며 이밖에도 수많은 기념비적 건물들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1962년에는 2분 37초에 한세대의 살림집을 조립하는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세상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였다. 전국의 건설자들은 평양시 건설자들이 창조한 평양속도를 본받아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여 도시로부터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움으로써 건설에서 일대비약을 일으켰다.

## 폐쇄경제

외부와의 경제적 연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의 울타리안에서만 경제적 관계들을 설정하는 배타적인 경제.

폐쇄경제는 종족이나 집단들 사이의 반목과 질시, 지방적 폐쇄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통치배들이 외부세력의 침습의 위협을 막고 자기들의 지배권을 될수록 유지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정치의 한 표현형태이기도 하다.

폐쇄경제는 나라의 생산력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 여기에서는 외부와의 생산소비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분업의 발전이 제한되고 노동도구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심히 억제된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능률이 매우 낮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계급들의 착취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폐쇄경제는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축성의 합법칙적 과정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나라와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은 오히려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로 경제기술적 협조를 강화한다.



10

## 합영기업

한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가 공동 출자하여 창설하는 기업.

합영기업은 보통 합영당사자들이 화폐자산이나 물자자산 또는 발명권과 기술문건 등을 출자함으로써 조직된다. 합영기업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그 조직의 목적이 달라진다. 자본주의하에서 합영형태의 기업창설은 이윤증대와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합영형태의 기업창설은 1950년대말~1960년대초에 다국적기업이 형성되면서부터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것은 다국적기업의 해외 침투방식의 중요한 형태로 되었다.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설치하는 합영기업은 보통 현지법인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이 합영기업에 민족적 외피를 씌워 침략하는 나라 인민들을 기만하고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서이다.

합영기업의 실제적 경영권은 다국적기업이 틀어쥐고 있다. 그것은 형식상 동업자들끼리 자본을 모아 기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합영기업에서 경영권은 자본을 많이 낸 자가 틀어쥐게 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자기의 우세한 자본을 가지고 토착자본과 합영기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언제나 상대방보다 많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의 실제적인 지배자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합영형태의 기업창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 기술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합영기업의 조직을 통하여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며 동력과 자재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합영기업을 조직하여 또한

외화수입을 늘이는 동시에 생산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합영기업을 자기 나라 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잘 운영조직할 수 있다. 그것은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견지하고 합영쌍방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에서는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채택하고 발표하였다. 합영법에 의하여 앞으로 공화국에서의 합영기업의 조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 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 \*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이후('94. 1 개정) 1992년말까지 북한이 제일 조총련계 등 외국기업과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투자기업 수는 전자, 기계, 화학, 의류, 식품, 광산 등 각 분야에 걸쳐 약 170여건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중 구체적으로 투자내용이 파악된 합영기업은 총 140건(북한내 유치 : 108건, 해외진출 32건)이다. 북한내 유치 투자기업중 약 90%에 달하는 101건이 조총련계 일본기업에 의한 투자이며 해외진출 투자기업중 약 72%에 해당하는 23건이 구소련에서 이루어졌다.

#### 업종별 투자실적

(단위 : 건수)

구분	경공업	서비스업	금속·기계	농수산물	전기전자	화학	광업	의료	계
국내유치	40	34	8	12	4	1	8	1	108
해외진출	·	19	·	5	·	·	2	6	32
계	40	53	8	17	4	1	10	7	140

※ 1992. 12 현재

#### 합자회사

산업자본주의의 초기 주로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직하는 회사로서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결합기업체라고 한다.

산업자본가(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과 이윤배당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다. 상업자본가(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액의 한도 안에서 지며, 이윤배당은 산업자본가의 승인밑에 이루어진다.

합자회사는 벌써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가져오는 싹으로 되었다. 산업자본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였고 상업자본가는 업무감사권만을 행사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업의 자본조달 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기업을 개인기업으로부터 회사로 되게 하였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보다 발전된 회사형태였으나 그의 자본조달의 규모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합자회사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많이 있었던 회사형태이다. 독점자본주의단계에 이르러 합자회사는 중소기업들에 한하였고 지금도 일부 제국주의나라들과 식민지나라들에 그 잔재가 남아 있다.

### 합작(경제합작)

서로 다른 나라들이 생산과 건설, 운수와 유통 등 분야에서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국제경제적 연계의 한 형태이다. 원래 합작이라는 말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작은 정치와 군사를 포함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주되는 것은 경제합작, 특히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합작이다.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합작이 시작된 역사는 오래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들 사이의 경제관계에 널리 보급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후 특히 최근 몇십년전부터이다.

경제협작이라는 개념은 나라마다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경제협작은 거기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 설비와 자재, 자금과 노력 및 기술 같은 것들을 대거나 거기에서 생산된 결과를 나누어가지는 국제경제적 연계형태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말로 쓰인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생산분야에서 하는 경제협작의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 나라가 생산설비나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가 나머지 생산요소들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생산설비나 기술을 제공하는 측은 협작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기타 가치물로 보상을 받는 것이 통례로 된다.

둘째 형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을 위하여 중간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협작일방이 상대방에 공급하는 제품들은 높은 기술적 요구를 준수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그러한 공급은 보통 수출상품처럼 팔리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중간제품을 공급받는 측은 이러한 형태의 경제협작거래가 일정하게 지속되는 기간 수입품을 자체생산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또 중간제품을 공급하는 측은 종종 협작대상기업이 이러한 제품들의 국산화를 일정한 기간안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방조와 기타의 협조를 줄 의무를 진다.

셋째 형태는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에 기초하는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작이다. 생산적 협작의 이 형태는 거대한 물동량을 이루는 생산물들의 항시적인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수송비와 운수조직에서의 불합리성을 동반하는 이러한 형태의 경제협작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형태는 합영기업에 기초하는 협조형태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본 경제협력형태의 하나로 된다. 합영기업은 협조쌍방의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에 대한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 형태의 합작은 다른 형태에 비하여 보다 심화된 생산경제적 연계를 가져온다.

## 협동농장

농민들의 자원적 의사에 의하여 토지를 비롯한 그밖의 생산수단들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사회주의 농업기업소.

협동농장은 농민들의 자원적 의사에 의하여 조직된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서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농장원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통제밑에서 관리운영된다. 김일성이 제시한 독창적인 농업협동화방침에 따라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 사업은 전후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성되었다.

노동당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다음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들을 당시 말단 행정구역이었던 리단위로 통합하여 그 규모를 크게 하였다.

농업협동조합들은 1962년부터 협동농장으로 고쳐부르게 되었다. 협동농장은 사회주의 농업기업소들 가운데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생산물 생산과 부침땅면적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밑에 자기활동을 진행한다.

협동농장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의 봉사를 받으면서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해 나간다.

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의 노동은 등급별 작업정량의 수행정도에 따라 노력일로 평가계산하며 노동지불은 개별적 농장원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연말 결산분배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진행한다.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은 농장원총회(또는 대표자회)에서 1년을 임기로 선거되는 농장관리위원회가 담당수행한다.

김일성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협동농장의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화, 조직화하도록 하였으며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밀접히 결합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 협동적 소유

생산수단이 일정한 집단의 범위안에서 사회화되어있는 소유로 협동단체소유라고도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밑에 개인농민들과 수공업자들, 중소상공업자들이 자기들의 사적소유인 생산수단을 자원적으로 통합하여 사회화함으로써 발생한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협동적 소유는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와 함께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룬다.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의 경제적 기초이다. 사회주의하에서 협동적 소유는 농촌경리부문에 지배적인 소유형태로 된다.

협동적 소유에서는 전인민적 소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관계가 청산되고 동지적 협조관계가 지배하며 생산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며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가 실시된다.

협동적 소유에서는 생산수단이 개별적 협동경리범위안에서 사회화되어 있으므로 생산물도 협동경리범위안에서 분배이용되며 소유권이 협동경리운영에 직접 이용되는 것에 국한된다. 이것은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국가적 소유에 비하여 낮은 형태의 소유형태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겨 전인민적 소유의 전일적인 지배를 이룩하는 큰 사회경제적 사변.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으로서 지난날 공화국에서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를 한 것과 같은 큰 사변이다.

농촌에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하면 전인민적 소유만이 지배하게 되며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가 과도적 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적 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적 사회관계를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거대한 전환으로 된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사상의식 및 문화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오늘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는 문제가 혁명발전의 일정하게 성숙된 과업으로 나서게 되었다. 당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며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일정한 시험적 단계를 거쳐 경험을 쌓으면서 군을 단위로, 점차적 방법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 주었다.

## 환자

서로 다른 나라의 화폐자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교환하는 현상.

환자는 자금을 바꾼다는 뜻으로서 주로 나라들간의 경제거래에 근거한 국제결제에서 제기되는 개념이다. 매개 나라들은 서로 다른 화폐명칭을 가지며 매개나라 단위화폐(본위화)가 대리하는 금량도 다를 뿐 아니라 구매력도 다르다.

따라서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에서 지불관계가 일어날 때에는 서로 다른 통화들 사이의 교환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교환관계를 통털어서 환자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환자시세, 상대방나라에 지불하기 위한 밀천으로서의 환자자금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 환자시세

다른 나라의 화폐단위로 표현된 한 나라 화폐단위의 가격으로 환율이 라고도 한다.

나라들 사이에 무역을 비롯한 경제거래에서는 돈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돈거래를 위하여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사이의 교

환비율이 필요하게 된다. 나라들 사이의 통화의 이러한 교환비율을 환자시세라고 한다.

환자시세는 서로 다른 외화를 주고 받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교환비율이며 구체적으로는 외화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환자수형, 외화저금에 의하여 밀받침된 외화행표, 기한이 찬 외국채권에 대한 상환청구문건 또는 이자청구권 등과 같은 외화청구증서를 팔고사기 위한 시세이다.

### 환자시세 추이

(북한 원/미 달러)

구 분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공정환율	—	0.87	1.07	1.02	—	—	1.07	1.01	1.00	—	—
무역환율	2.05	1.79	2.43	2.23	2.14	2.15	2.23	2.14	2.15	2.13	2.15

### 흙갈이 작업

북한에서는 객토작업을 흙갈이 작업이라고 한다.

흙갈이 작업을 논흙갈이와 밭흙갈이로 나누어 부르며 이를 거름내기와 함께 핵심적인 농사준비사업으로 중시한다.

이는 김일성이 “모든 논밭에 흙갈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알곡 수 확고가 좌우된다”고 언급한 것이나 흙갈이 작업을 단순한 농사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투로 표현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북한은 흙갈이라는 표현을 「다듬은 말」로 부르며 특히 김일성이 「몸소 다듬어 준 말」이라고 주장한다.

즉, 전에는 다른 곳에 있는 흙을 파다 논밭에 편다고 하여 「손님흙」이라는 뜻으로 객토작업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김일성이 이를 다듬어 향토애와

민족적 향취가 그윽한 흙갈이로 부르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흙갈이라는 용어속에도 김일성의 인민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면서 봄 농사철에 앞서 모든 주민들이 흙갈이 전투에 앞장서 나설 것을 독려한다.

## 북한경제용어집

---

인쇄 1994년 5월 27일

발행 1994년 5월 30일

발행처 남북회담사무국  
운영 2부  
경제회담과  
(전화 730-3656)

인쇄처 (주)성림문화

---